



아 산 서 원

ASAN

ACADEMY

峨 山 書 院



VOYAGE

아 산 서 원 제 8 기

VOYAGE

아 산 서 원 제 8 기



“나는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고
자본이나 자원, 기술은
그 다음이라고 확신한다.”

아산(峨山) 정주영(鄭周永) 선생

아산서원 소개	06
사업 소개(비전, 설립목적)	08
입학식	10
원생 소개	12
인문교육과정	14
인문과목 수기	16
교양과목 수기	30
종업식	54
Asan Washington Fellowship Program	56
Washington DC 인턴십 수기	58
Friday Program 수기	83
Asan Beijing Fellowship Program	94
Beijing 인턴십 수기	96
Friday Program 수기	101
아산정책연구원 및 아산나눔재단 소개	104



아산서원 소개

사업 소개(비전, 설립목적)

입학식

원생 소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로지 우수한 인적자원에 기대어 국가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큰 꿈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리더들을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아산나눔재단은 공동으로 '아산서원(Asan Academy)'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문학, 사학, 철학에 기반한 전통적인 인문교육과 현대적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PPE(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교육과정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동서양의 고전은 올바른 삶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공동체와 국가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선진국이 오늘날에도 고전에 바탕을 둔 인문교육을 지도자교육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동체를 아끼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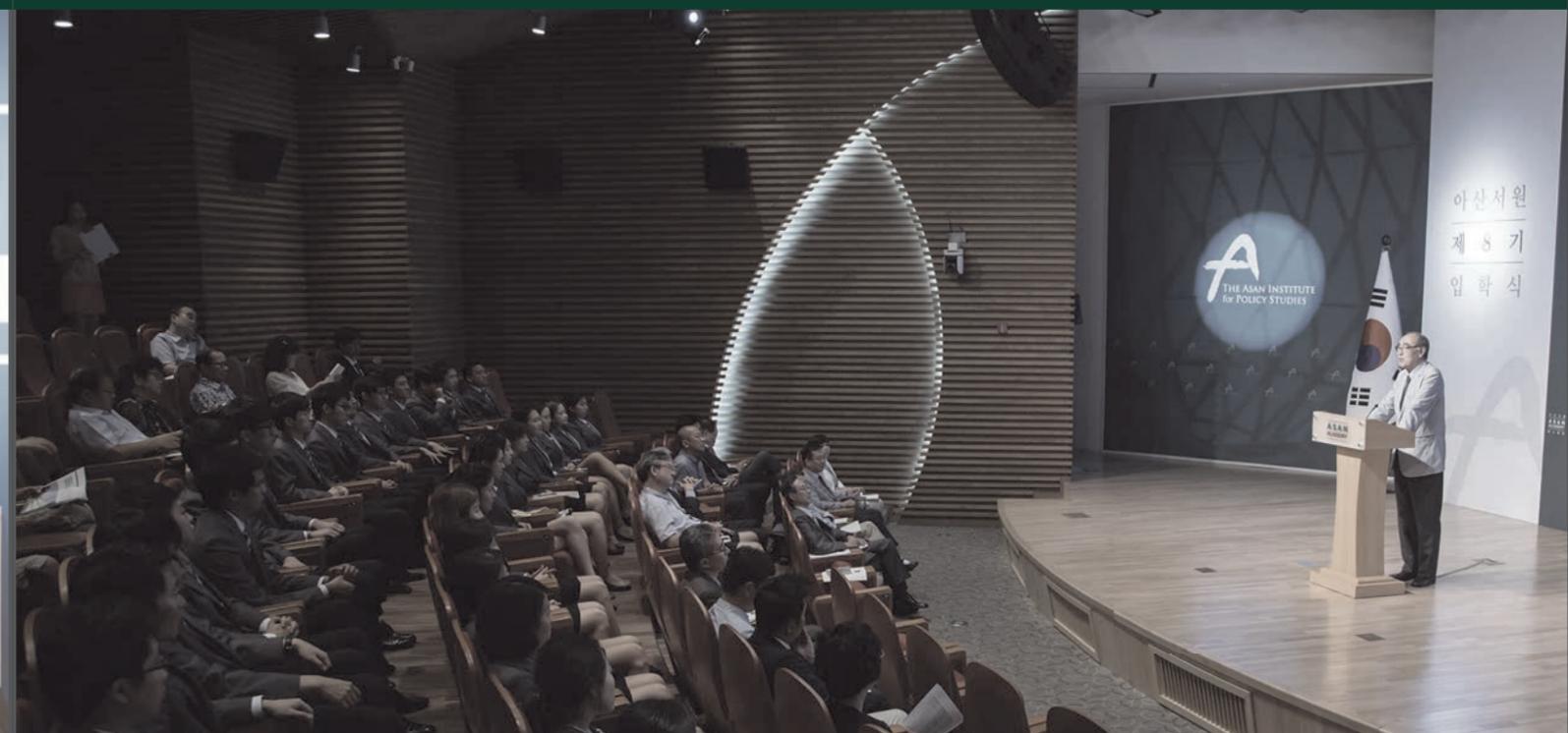
아산서원은 공동체 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에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도록 아산서원 원생 전원에게 기숙사(아산학사)를 제공합니다. 조선시대 서원(書院), 영국과 미국의 명문 칼리지(College)의 공통점은 원생 또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태도는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일 뿐 아니라 미래 지도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아산서원은 원생들에게 미국 워싱턴 DC 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유명 싱크탱크와 비영리 기관에서 정식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진화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과제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리더들은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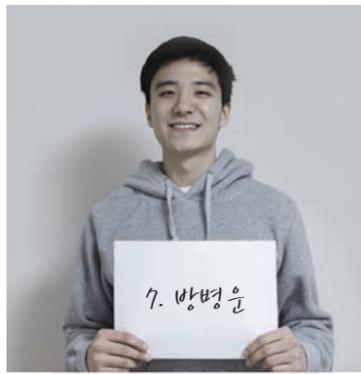


아산서원 제8기 입학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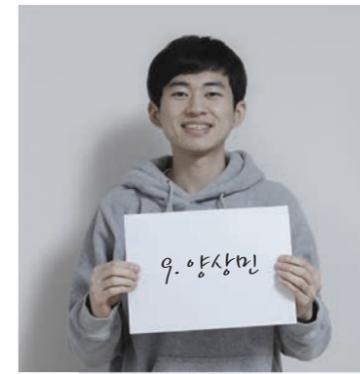




1. **김규은** 학력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비교문화과문화 장래희망 사회적기업 CEO 포부 아산서원에서 동서양의 인문학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과 저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2. **김서영** 학력 서울대학교 외교학 장래희망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가 포부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3. **김진영**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장래희망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포부 감동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4. **박규민** 학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장래희망 보안 전문가 포부 넓게 보고 자유롭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5. **박은영** 학력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정치, 사회, 심리학과 장래희망 국제기구 전문가 포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6. **박진수** 학력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 정치국제학과 장래희망 환경개발 전문가 포부 세상에 대한 깊이를 더해 사회에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7. **방병은** 학력 미국 Calvin College 경영학과 / 종교학과 장래희망 한국학 교수, 교육 전문가 포부 깊이있는 배움을 통해 사회적, 감성적, 지적으로 균형잡힌 사람이 되겠습니다. 8. **안소정**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 경제학과 장래희망 對 중국 마케팅 기획자 포부 아산서원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양상민** 학력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장래희망 엔지니어 포부 항상 해결같은 설렘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 **오세규** 학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장래희망 진술한 교육 행정가 / 영어 교사 포부 언제나 생각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1. **이상태** 학력 계명대학교 KAC International Relations 장래희망 국제관계 전문가 포부 끈기 있게 성장하겠습니다. 12. **정순형** 학력 경북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장래희망 헌법연구관 포부 추수할 만한 알곡이 되겠습니다. 13. **조성문** 학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장래희망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포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배우겠습니다. 14. **조은채** 학력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장래희망 동아시아 미술 전문가 포부 항상 배워나가는 매일을 보내겠습니다. 15. **추재경** 학력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래희망 IT 서비스 기획자 포부 아산서원 제8기의 해피바이어 스이자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16. **김유림** 학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래희망 문화예술 전문가 포부 함께, 즐겁게, 열정적으로 임하겠습니다. 17. **김태영**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조선기자재공학 장래희망 국제품질검사관 포부 사람의 혼을 자극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18. **박성호** 학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장래희망 통일한국의 범주인 포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19. **박세호** 학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장래희망 공직자 포부 성실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즐거이 배우겠습니다. 20. **변성지** 학력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장래희망 PD 포부 배움과 사고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겠습니다. 21. **안소영** 학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석사 장래희망 기술사업화 전문가 포부 아산서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장점만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22. **우진영** 학력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창의기술경영 장래희망 국제증제 및 소송 분야 범주인 포부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3. **윤창배** 학력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장래희망 기업인 포부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24. **이지연** 학력 영국 University of Oxford 대학원 환경지리와 장래희망 환경정책 전문가 포부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5. **전재권** 학력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 / 경영학과 장래희망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포부 배운 것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6. **전혜빈**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래희망 인권활동가 포부 함께 성찰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27. **정서희** 학력 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장래희망 국제교류 전문가 포부 간절함과 열정을 잃지 않고 배워나가겠습니다. 28. **정혜성** 학력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장래희망 전시 큐레이터 포부 정의롭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9. **조민제** 학력 한남대학교 사학과 장래희망 여행 컨설턴트 포부 제 인생 최대의 업적인 아산서원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 **허두혁** 학력 서강대학교 사학과 장래희망 무역통상 실무자 포부 아산서원이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 남도록!





인문교육과정

인문과목 수기
교양과목 수기
종업식

역사와 문학

갈등을 넘어 화합의 길로 가는 역사

서재
허두혁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행로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비추

기 위해서가 아닐까? 역사와 문학 수업은 한국 근·현대사라는 거대한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간 개인을 함께 바라본다. 사실 나는 역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산서원에서 배운 역사 수업은 대학 강의와는 사뭇 달랐다. 수업을 통해 역사와 개인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던 개인의 자취 역시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결코 흑백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인호, 허동현 교수님께서는 보수적 시각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시지만,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들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자신만의 역사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우리 사회가 미

역사와 문학



“역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학문이다. 역사 교육을 받고 이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치적인 견해도 갖게 된다.”

‘역사와 문학’ 수업 이인호 교수님 말씀 중

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넘어 화합에 이를 수 있게 역사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수업이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500년 전 조선을 보다

서재
정서희

조선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국가이다. 첫 수업 시간, 교수님께서는 조선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으셨다. 나에게 조선이란 내가 최초로 알게 된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화려한 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화유산과 왕실의 흥미로운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의 잘못된 응용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이끈 애증의 국가였다. 그런 나에게 『조선왕조실록』 수업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객관적으로 조선을 담아낸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과학교육, 술 문화 등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조선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남희 교수님께서 항상 원생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기도 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좋은 발표를 준비해 준 원생들도 있었기에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서울 곳곳에 남아 있는 조선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

『천자문(千字文)』과 『격몽요결(擊蒙要訣)』 역사는 살아있다

동재
김진영

서원에 입소하기 전, OT에서 받은 2권의 책, 『천자문』과 『격몽요결』은 나를 인문학의正道(正道)로 인도해 주는 출발점이었다. 나의 아산서원 생활은 『천자문』을 외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이 책을 외우는 의미를 딱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 모든 공부에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

『천자문(千字文)』과 『격몽요결(擊蒙要訣)』



다. 하지만 일단 무작정 외우고 시험에 통과하고 나니, 동양 서적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덕분에 『천자문』을 외워 익힌 한자들을 바로 『격몽요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장을 보면 『천자문』이 떠올랐다. 또한, 매주 『격몽요결』을 읽고 쓴 글을 수업시간에 함께 나누며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 서원에 입소하고 가장 많이 한 다짐은 바로 ‘기본을 지키자’였다. 『격몽요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에 대한 기본 말이다. ‘천지현황(天地玄黃)’과 『격몽요결』에서 이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道)’는 너

무 익숙해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누가 『천자문』을 외워보고, 그런 지루한 것들을 실제로 실천해 봤을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익숙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논어(論語)』 본문 中



『논어(論語)』와 『맹자(孟子)』

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다. 이를 배우고 익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 행위 자체가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

플라톤, 『국가·정체』

Art of Life

서재
정혜성

철학은 무엇인가를 사고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주는 학문이다. 우리는 플라톤, 『국가·정체』 수업을 듣는 동안,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과 부연 설명을 들으며 실마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플라톤이 말한 실재라는 개념과 그림자 비유 부분이 인상 깊었다. 실재라고 믿었던 그림자가 사실 실재가 아니듯이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조차 완전한 실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존재의 사실이 불투명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정체를 찾으려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오히려 충만함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가·정체』에서도 통

치술이라는 개념이 체계화되기 어려웠듯, 'Art of Life' 역시 정의될 수 없었다. 여전히 철학이 무엇인지, 나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삶의 마지막에서조차 내가 나의 '정체'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교육에 대한 플라톤의 정의가 뇌리에 맴돈다. 플라톤은 교육이란 보지 못하는 눈에 시각을 넣어주듯, 혼 안에 지식을 넣어주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내게 이번 수업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 삶을 고찰하고 지혜와 지식을 배우며 나의 '정체'로 향하는 과정이었다.

플라톤, 『국가·정체』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제다. 김형철 교수님의 『자유론』 수업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으면서 원생들끼리 소규모 토론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밀의 이론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세월호 시위, 성매매 합법화, 자살의 자유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슈에 관해 토론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그 자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자유론』은 수업방식도 매우 인상 깊었다. 먼저 교수님께서 찬반이 갈리는 이슈를 제시해 주신 후, 원생들은 파트너와 함께 찬반으로 나뉘어서 토론한다. 그 후, 교실에 소규모 그룹으로 모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 과정에서 내 의견을 피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에 집중할 수 있었고, 밀이 말했던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직접 실천할 수 있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자유롭게 자유를 논하다

동재
김규은

자유란 무엇이고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할 난

미국의 건국과 입헌주의

미국의 나이테를 읽다

동재
이상태

『논어(論語)』와 『맹자(孟子)』

학이시습지불역열호 (學而時習之不亦說乎)

동재
김진영

『논어』는 유교 경전인 사서오경(四書五經)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 최초의 어록이기도 하다. 『논어』는 공자의 말을 모아 간추려 편집한 것인데, 작가나 집필 시기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하지만 동양에서 가장 오랫동안 널리 읽혀 온 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이다.

세계의 리더들은 앞다투어 매일 『논어』를 읽는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그들의 성공 비결을 이 책에서 찾기도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책을 찾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 경전의 가치가 성공의 비결로만 한정된 것 같아 조금 안타까웠다. 『논어』의 가르침은 비공비림(批孔批林) 등의 험난한 세월을 견디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우리는 『논어』와 『맹자』 수업을 통해 『논어』를 얼마나 다



미국의 건국과 입헌주의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푸코의 용기와 배움

서재
박 세 호

저마다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한데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사회의 결은 객체의 특성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띤다. 그 미묘한 틈을 포착해 설명하는 일. 매너리즘을 이기고 평범한 일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수업은 그런 파괴의 용기와 설명에 대한 집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푸코는 처벌을 위한 분류와 그로 인해 나타난 ‘개성’을 이야기했다. 특히 처벌의 변화로 역설적으로 탄생한 개인과 민주주의에 대한 서술은 소름 끼치도록 신선한 대목이었다. 신체, 구속, 내면화 등 새롭고 난해한 지식을 이해하기에도 벅찬 시간이었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지만, 이 멋진 이론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 쉽게 간과하고 있었던 숨겨진 세상의 결들에 대해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수많은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시이론을 배웠고, 매시간 방법

론적 회의를 연습했으며, 열띤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에 특히 즐거웠다. 더욱이, 『감시와 처벌』은 제8기원생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수업이었던 만큼,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함재봉 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투키디데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시대를 뛰어넘는 직관

동재
정 순 형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는 2400년 전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는 친숙했지만, 오래전의 기록이며 서구의 기록이기에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팽창하는 아테네와 주변국 간의 갈등은 현대 사회의 거시적인 세계정세에도, 개인 간의 갈등에도 여전히 유효한 모습들로 펼쳐

져 있었다. 특히, 정치적 결정들에 관하여 찬반의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기록한 점이 인상 깊었다. 고대의 전쟁은 비이성적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갈등의 이유가 지금도 충분히 공감할 만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게다가 단순히 고대정세에 그치지 않고 국제관계이론과 현재의 미중관계에 책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했는데, 국제관계가 단순한 힘 싸움의 과정을 넘어서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여전히 명쾌하게 국제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고대의 기록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 부분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차이를 넘어서서 갈등을 조망할 수 있는 직관이었다. 앞으로 국제이슈를 관찰하는 것이 조금 더 즐거워질 것만 같다.

“I shall be content if it is judged useful by those who will want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happened. It was composed as a permanent legacy, not a showpiece for a single hearing.”

투키디데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본문 중

알렉시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재
우 진 영

민주주의의 역사가 발전한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5주 동안 살펴보았다. 프랑스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 1835년 미국기행 동안 작성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미국 건국

초기 민주주의 형성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 배웠다. 문화, 종교 측면에서 평등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으며, 정부를 형성할 때 평등한 집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권력 견제 장치가 생겼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다. 완벽한 평등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관계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J. James Kim 교수님께서서는 문제들이 보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씀해주셨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결정을 내려주거나 임무를 완수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본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저 빠르게 일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회가 아닌, 조금은 오래 걸리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아닐까?



알렉시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오리엔탈리즘』과 『문명충돌론』



『오리엔탈리즘』과 『문명충돌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다

동재
조 성 문

우리는 몇 주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비교하면서 읽으며 세계의 문화, 혹은 문명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이해했다. 매시간 저자의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세계는 서로 다른 국가의 충돌을 넘어 문화, 혹은 문명 간의 충돌시대다. 점점 경제적, 정치적으로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지역이 통합되어 가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다른 문명과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세계화에 대해서 사이드는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헌팅턴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상반된 관점에서 주장을 펼친다. 원생들은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본인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지금의 국제정치와 중동 문제를 진단해 보았다. 장지향 교수님의 수업은 원생들에게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아시아, 유럽, 미주 등으로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헨리 키신저, 『세계질서』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서재
조 민 제

지구촌이라는 말이 이제 더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손쉽게 지구 곳곳을 갈 수 있고 안방에서 전 세계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세계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변화

『세계질서』 수업은 그동안 미국의 눈으로 세계를 봐왔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각 세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수업이었다. 각 세력 사이의 세계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질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경제사

헨리 키신저, 『세계질서』



해 가고 있다. 평소에 나는 국제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어느 특정한 사건을 두고 여러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사건을 통해 국가별로 어떠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지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어느덧 세계를 움직이는 특정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EU로 대표되는 유럽공동체, 이슬람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잇는 사회주의 라인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동맹이었다. 또한 이 세력들이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 궁금했다.

경제사 경제는 수학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제도이다

동재
박 진 수

경제사는 인문학에 가까운 학문이다. 단순히 경제현상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왜 경제성장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서부터 경제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승욱 교수님과 함께 베네치아,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이 왜 성공적으로 경제를 이끌 수 있었는지를 논의했다. 특히 베네치아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역이나 항해술이 아닌 사회적 재산을 보장해주는 법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16세기의 패권국가가 되었다는 점 역시 흥미로웠다. 이를 통해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강의가 마무리되었다. 5주가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이었지만, 경제학도로서 어떤 사회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사회인지 고민할 수 있었기에 뜻깊었다.

시장과 경제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현실, 경제학

서재
허두혁

경제학은 우리 실생활에 가장 와 닿는 학문이면서도 접하기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다. 경제학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칠판을 가득 메운 수식들을 함께 떠올린다. 그러나 경제는 우리 주변에서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이다.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론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산서원에서 배운 시장과 경제 수업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미시경제 수업에서는 경제학의 기초 원리를 배우고, 경제학을 최적화, 균형, 실증주의라는 키워드를 통해 바라볼 수 있었다. 거시경제 수업에서는 현실 경제현상을 해석하는 틀을 배웠다. 미시경제가 경제학의 기본적 원리를 체득하는 과정이라면, 거시경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경제현상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수업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라는 제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아산서원의 시장과 경제 수업은 10주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기본 틀을 다질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거시경제는 나라 경제를 분석하는 학문이며,
이는 후생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시장과 경제’ 수업 정제식 교수님 말씀 중

시장과 경제



국제무역체제 무역은 한국에게 그리고 원생들에게 가능성이다

동재
박진수



국제무역체제

한때 한미 FTA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자유무역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사회의 큰 고민이었으며, 세계화에 대한 논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 지금까지 내수가 아닌 무역으로 성장해 왔다. 생필품부터 자동차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무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역이 어떤 이론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변화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박태호 교수님의 국제무역체제 수업은 5주라는 짧은 시간 동

안 무역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고 어떤 협상으로 변화되는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데이비드 리카도, 헉셔와 오린, 폴 크루그먼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 무역으로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했으며 DDA, FTA, WTO 그리고 TPP까지 직접 발표를 준비하며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원생들은 교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협상 경험들을 통해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다.

수사학 말 한마디로 천 냥 빛을 갚는다

서재
김태영

우리는 각자 개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도 소중한 인격체이다. 그러한 인격체 간에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함재봉 원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셨던 수사학 수업은 우리의 언어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다. 민주주의 사회

수사학



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의사소통과 토론 과정에 있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말을 잘한다는 것이 겉멋 든 세 치 혀를 놀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말에 진솔한 감정을 담아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고 설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학 영상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였다. 애플이 위기였던 순간에 잡스가 말한 한 마디에서 그의 지도력과 열정, 그리고 꼭 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 화려한 말이 아닌, 그 자체로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 보이는 것, 말로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를 통해 자신의 말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 앞으로 우리가 되짚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열림과 단힘

열림과 단힘 물음을 묻다

동재
방 병 운

지난 5주간 우리는 물음을 물음으로써 종교에 대한 마음의 길을 열었다. 정직하고 순수하게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실증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종교 문화에 다가갔다. 정진홍 교수님과 함께 마음에 품고 있던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학문적인 개념 혹은 감정적인 요소에 의지하지 않고 실존적인 종교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믿음과 이성, 문화의 일상성, 역사적 개념 속의 종교, 고백의 언어 그리고 죽음에 대해 논의하며 그동안 세상과 사회 그리고 인간들이 감춰왔던 종교의 본질을 하나씩 들추어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던 나만의 불완전한 종교적 이념들을 발견하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종교는 자신의 물음에 정직하게 직면하여 해답을 찾아 인정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신 교수님. 단순히 종교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힌 것뿐만이 아닌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책임기와 글쓰기 책임기와 정체성

서재
박 성 호



책임기와 글쓰기

아산서원에 오기 전 나는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다. 쉬 없이 달려 목표에 도달하면 저 멀리 또 다른 깃발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책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다.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었다. 끝이 없는 듯한 트랙 위에서 앵무새처럼 남의 지식을 읊을 뿐이었다.

5주간의 수업에서 정수복 교수님께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셨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책임기는 내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나 자신만이 가지는 호기심, 문제의식의 트랙 속에 스스로를 옮겨 놓는 일이었다. 그 깨달음을 얻자 그동안 없었던 지적 욕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남과 구별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에 빼앗겼던 자아를 찾은 뜻깊은 순간이었다.

영화로 읽는 동아시아 문화 상처를 보듬다

동재
박 규 민

을 다루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된 개인, 자신의 목표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킨 사람,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까지.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상처에 공감하며 원생들은 자신의 상처를 보듬었다. 불 꺼진 무대를 지나 학사로 복귀하며, 모두 공감이 옛 생각에 잠겼다.



영화로 읽는 동아시아 문화

"화장은 어차피 외면을 단장하는 것일 뿐 화장으로 가린다 해도 결국엔 원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음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영화 '화장사' 대사 중

빡빡한 스케줄에 벗어나, 이 시간만큼은 폭신한 의자에 몸을 묻고 긴장을 풀었다. 강당에 모여 하나의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도 묘한 유대감을 주었다. 다섯 편의 일본 영화는 다양한 상처를 지닌 개인

원생들은 그 생각의 결과를 소감문으로 작성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소감문을 낭독하며 서로의 드라마를 용감하게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원생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 돈독해졌다. 마지막 영화가 보여주었듯, 각자의 상처를 모두가 서로 곱게 화장해주기를 바란다. 수업 후 뒤풀이까지, 모든 것이 원생들을 복돋아 준 수업이었다.



건축의 공간사회학

유어예(游於藝): 예술에 노닐다

전통의 멋, 국악의 멋

서재
변성지



유어예(游於藝): 예술에 노닐다

건축의 공간사회학

도시 안에 산다는 것

서재
정해성

우리는 이 도시 안에서 무엇인가? 서현 교수님의 건축의 공간 사회학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문화와 행동 양식에 이제껏 익숙 해져 미처 간과하고 스쳤던 건축물들이 시선 위로 새롭게 덧입 혀지기 시작했다. 삼청동, 혜화동, 석촌호수, 창천동 거리를 걸으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명, 건축물, 지하철역 이름 의 유래가 떠올랐다. 선조들의 긴 역사가 일부 공존하는 땅 위 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한국적 행동 양식을 가진 후손들이 살고 있음이 경이롭게 느껴졌다. 건물 하나를 설계할 때에도 수개월 간의 심사숙고 끝에 하나의 디자인이 나오고, 이 디자인은 다 음 세대에게 우리의 현재를 증명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존중받 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하듯이, 우리는 그전 세대 가 남겨 놓은 흔적을 존중하고 도시 속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건축의 공간 사회학 수업은 우리가 발 딛는 이 공간 이 결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고 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반추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제8기부터 새로 시작된 과목인 '유어예(游於藝): 예술에 노닐다' 수 업은 우리 전통음악을 느끼고 체험하고자 하는 취지로 구성된 수업 이었다. 전통음악은 오히려 서양음악보다도 더 낯설었지만, 수업시 간에 궁중음악부터 민요까지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배우고 감상하 면서 우리 음악만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었다. 직접 소금을 연주하 면서 정간보를 읽는 법도 익히고 여러 곡을 연주했는데, 전통음악을 한층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매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대금, 가 야금, 그리고 판소리 연주자 선생님들을 초청하셔서 가까이에서 국 악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녹음된 소리가 아니라 직접 연주된 곡을 감상하니 더욱 좋았다. 특히 마지막 수업 때 연구원 1층 갤러리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국악 콘서트도 인상적이었다. 이번 수업은 국악에 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다양한 악기가 있고, 그 악기들 이 만들어내는 음악 또한 매우 멋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 었다.



서예·문자학

Thesis Writing

논문, 세상을 분석하는 틀

서재
이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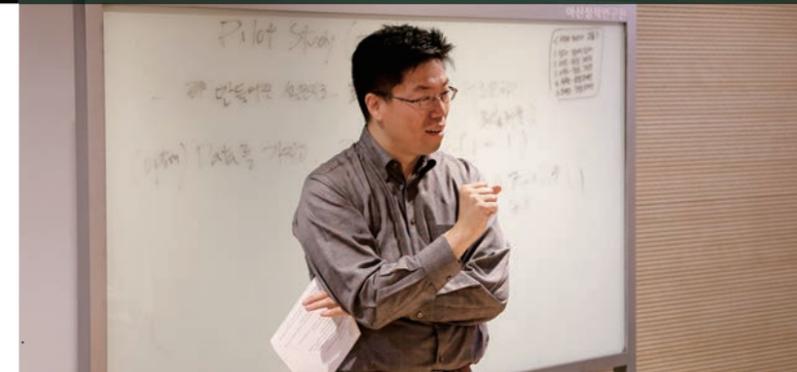
서예·문자학

나를 검정에 담다

동재
박규민

“죽는 순간까지 서예는 끝나지 않아!” 한 장만 더 쓰면 목표한 글자를 전부 쓰게 된다는 한 원생의 말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 씀이다. 원생들이 춥다고 불평하거나 산만하게 돌아다녀도 교 수님께서서는 홀로 끄웃하셨다. “서예는 정신 수양”이라는 당신 의 말씀처럼, 먹을 갈고 글을 쓰는 과정이 모든 잡스러운 생각 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어느새 원생들도 엄정한 교수님께 감화 되어 팔이 저리도록 먹을 갈고, 묵묵히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기이한 일이 생겼다. 먹이 번지지 않게 붓을 놀 리게 되었다. 자기가 쓴 글자를 보고 미소 짓기 시작했다. 문자 의 발전과 전서, 초서, 행서, 해서, 예서와 같은 서예의 스타일 이 어떻게 관련 있는지 알게 되었다. 추위와 같은 고난도 오히 려 행운이었다. 많은 인내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주변 환경에 휩쓸리는 번잡한 마음을 서예로 다스렸다. 한 획 한 획 정성을 들이며, 젊음이 가벼웠던 원생들은 서예 수업을 통해 스스로 침잠하는 시간을 가졌다.



Thesis Writing

고명현, 최현정 교수님들께서는 Thesis Writing 수업을 통해서 가 설과 변수로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안목을 길러주셨다. 새로운 인과관계를 발견하며 가설을 세우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해가는 과정은 언뜻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 다. 원생들은 각자 자신이 세상에서 흥미롭게 느꼈거나 문제라고 생 각했던 현상들을 나누며, 이를 논문의 가설로 가다듬어보는 유익한 사교 훈련을 해 볼 수 있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아마 아산서원처럼 '논문'이라는 것을 속속들이 파헤쳐주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 논문은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더했다. 그만큼 스스로 헤쳐가며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간다는 것이 다. 그렇기에 이곳 아산서원에서의 논문 작성 수업은 우리에게 흔히 오지 않는 특별한 기회였다. 세상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의 연구란 어 떤 것인지 고민한 날들은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함재봉 원장님 특강 1

2015. 08. 05



리더의 핵심가치

동재
방 병 운

역사는 사람에 의해 흘러간다. 한 명의 리더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듯이 지도자의 역할과 역량은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리더십의 본질을 고민하며 본질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문학적 소양은 지도자의 핵심가치로 대두하였다. 역사는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철학적, 정치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지도자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과 사고가 필요하며,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리더십은 인문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함재봉 원장님께서 리더를 꿈꾸고 있는 원생들에게 인문학의 탄생 배경과 이를 공부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가르쳐주셨다. 지도자의 역할은 공동체가 공동

체 됨을 느끼게 하는 것에 있고, 인문학이 바로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혜와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열정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김덕수 선생님 명사특강

2015. 08. 19



세계 속의 사물놀이 - 도전과 희망

서재
정 서 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번 명사특강을 통해 가장 한국적이라 할 수 있는 사물놀이를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던 김덕수 선생님의 노력과 비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이번 명사특강은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동영상들을 보여주시고, 장단에 맞추어 직접 춤을 추시는 등 다채로운 순서들로 진행되었다.



장구, 징, 썰과리, 북의 조화로 이루어진 사물놀이에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장단에서 나오는 흥이 있었다. 미국의 'marching band' 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에 브랜드 가치를 입혀 외국에 알리고, 이를 통해 인류 전체에 공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덕수 선생님께서는 사물놀이가 국내외의 음악 교과목 과정에 포함되는 날을 꿈꾸고 있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말씀은 한국과 외국의 문화를 잇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나에게 목표를 더욱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함재봉 원장님 특강 2

2015. 09. 02



한국 사람이란 누구인가

동재
안 소 정

함재봉 원장님께서 원생들에게 “한국 사람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하시면서 강의를 시작하셨다. 원생 중 아무도 원장님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처럼 급격하게 시대가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조차 한국인에 대한 합의된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원장님은 한국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설명해주셨다. 역사책에서도 알 수 없었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역사적 맥락에 대해 파악하고, 한국인의 뿌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원장님께서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한국 사람 만들기’ 특강을 들으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한국인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고명현 교수님 특강

2015. 09. 25



무한한 생각저장소

동재
박은영

싱크탱크, 아산서원에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온 후에도 수없이 들어왔던 단어였다. 하지만 “싱크탱크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답하기가 어려웠다. 단순히 연구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학술기관이라고 하자니 그것 이상의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어떤 기관을 예로 들어 이곳은 싱크탱크인가 아닌가, 혹은 싱크탱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곧 내가 지원해야 할 싱크탱크를 정해야 하는 시기에, 고명현 교수님의 특강은 나의 이러한 의문점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다. 강의를 통해 싱크탱크들의 역사와 각 기

관의 특징을 배우면서,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독립 싱크탱크 사이의 경쟁과 협업이라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거시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앞으로 일하게 될 싱크탱크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 즉 소통과 기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노소영 관장님 명사특강

2015. 0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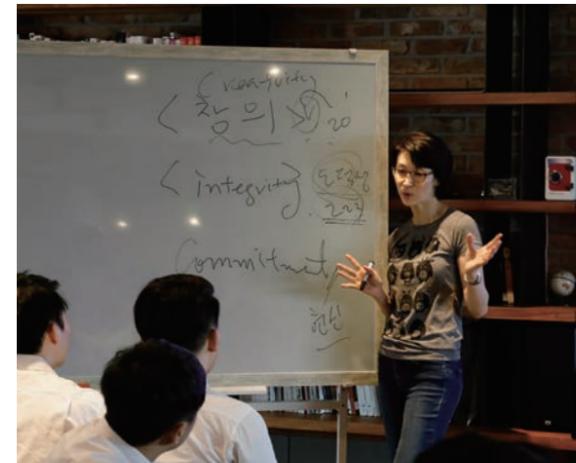
타작마당에서의 의미 깊은 오후

서재
조은채

노소영 관장님의 명사특강은 처음으로 외부에서 진행되는 명사특강이었다. 서원 내부가 아닌, 장충동에 있는 ‘통섭인재양성소 타작마당’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관장님께서는 원생들에게 타작마당의 내부를 직접 구경시켜 주셨다. 통섭인재양성소라는 이름처럼, 타작마당은 다

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채로운 것들을 배우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였다.

노소영 관장님께서서는 진정한 리더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통찰력 깊은 답변을 주셨다. 관장님께서서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성, 원칙,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리더의 조건 중에서 오늘날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현대 사회가 빠르게 발전했듯이, 리더도 그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이제 단순히 원칙을 지키거나 헌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헌신할 원칙을 창조해내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 된 것이다. 관장님께서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리더의 중요한 조건이자 자질이 되었으며, 앞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차세대 지도자를 꿈꾸며, 서로 다른 30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각자가 나름의 리더로 역할하고 있는 아산서원 제8기 원생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다. 실제로 원생들이 아산서원 생활을 통해 어렵듯이 느끼고 있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으로 정리하고 있지는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 타작마당에서 진행된 관장님의 강의는 모든 원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았을 것이다.

배우 손숙 선생님 명사특강

2015. 10. 27



‘만남’의 예술, 연극

서재
김유림

연극 <키 큰 세 여자>를 관람하고 난 2주 후, 우리는 연단에서 손숙 선생님을 다시 뵈었다. 연극은 ‘만남’의 예술이라고 한다. 배우는 새로운 관객을 만남으로써 무대에 오를 힘을 얻고, 관객은 연극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만난다. 선생님께서는 연극이 지니고 있는 ‘만남’의 특성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 인물들의 내면과 관계 양상을 살핌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예술에 대한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이자 예술 교육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근거, 특히 연극이라는 종합 예술이 계속해서 사랑 받아야 하는 까닭이다.





선생님께서서는 대학 시절 이야기를 통하여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할 때 나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들려주셨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 한데 모인 아산서원 제8기 원생들도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보았다.

이번 명사특강을 통해 오랜 기간 연기 인생을 살아오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극에 대한 선생님의 애착과 자긍심,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젊음의 가치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수잔 솔티 대표님 명사특강

2015. 11. 13



북한을 다시 생각하다

동재
조 성 문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곳이 바로 북한이다. 우리는 이번 명사특강에서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 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수잔 솔티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며 인권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명사특강 전, 나는 '지구의 반대편 나라에서 살아오신 분께서 어떻게 한반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며 "인권 문제에는 인류보편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이 나의 경종을 울렸다.



다. 오히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북한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만 알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몰랐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수잔 솔티 대표님의 명사특강은 북한의 독재 정권과 그 이념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사는 주민들의 삶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인권 문제는 이슬람 국가들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가까운 북한에서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제인권만큼이나 북한의 인권도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는 중국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북한 여성이나 아이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해졌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여전히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님께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북한 인권 문제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날이 오길 바란다.

존 델루리 교수님 명사특강

2015. 11. 24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파헤치다

동재
김 규 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특히 워싱턴 DC와 베이징의 싱크탱크에서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아산서원 원생들에게 존 델루리 교수님의 명사특강은 우리가 몰랐던 국제관계의 변천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동맹관계로만 생각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사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으며, 최근 10년간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원생들은 이번 명사특강을 통해 1992년 남한과 중국이 수교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와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강의 후에도 1시간이 넘도록 원생들과 교수님 간의 열띤 대화와 토론이 이어지며 우리는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다.

존 델루리 교수님께서서는 국제관계나 정치외교를 전공하지 않은 대다수 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업을 쉽게 진행해 해주셨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 강의 후반부에는 작년 중국의 전승절 기념 행사 및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외교관계를 설명해 주셨고, 그것이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 군사 퍼레이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려 주셨다. 뉴스에 나온 이슈들을 역사적, 국제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 뜻깊었던 자리였다. 앞으로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실용영어



영어, 부족한 2% 채우기

동재
오 세 규

중·고교 시절 영어를 공부하며 가장 목말랐던 부분은 실생활과 관련된 말하기 부분이었다. 그런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 대학에 들어와서는 회화에 영어 공부의 거의 전부를 할애했다. 더군다나 원어 수업, 회화 시험 등의 압박까지 더해지자, 20대 초반의 영어 공부는 어느새 '아무 말이나 일단 하고 보는 것' 정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어느덧 말문이 트이고 억양과 발음이 나아지면서 '유창함'이 조금 생겼다고 느낀 순간, 다시금 부족한 부분이 느껴졌다. 좀 더 교양 있는, 실력 있는 영어를 구사하고 싶어진 것이었다.

아산서원의 실용영어 수업은 그런 '교양과 실력을 갖춘' 영어를 위한 수업이었다. 문법과 어휘들을 되짚으며 '정확성'을 키울 뿐만 아니라, 각종 비즈니스 표현들과 매너를 익히며 워싱턴 DC에서의 인턴 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연습했다. 회화에만 몰두하느라 놓쳐버린 2%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용중국어(초급)



你好! 我是韩国人!

동재
추 재 경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는 오늘날, 중국어는 필수적인 언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성조와 많은 한자 때문에 나에게 중국어는 상대적으



로 어렵고 꺼려지는 언어였다. 아산서원에서 만난 실용중국어 수업은 중국어에 대한 나의 벽을 완벽히 허물어 주었다. 대화를 중심으로 가르쳐 주신 장쯔위 교수님 덕분에 중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게임 등을 통해 즐겁게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라며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 표현과 함께 쓸 수 있는 다른 표현도 함께 알려주셨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많은 표현을 배울 수 있었다. 원생들도 적극적으로 중국어로 대화하며 참여해주어서 20주 동안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실용중국어(고급)



중국어로 사람을 배우다

서재
우 진 영

대학교에서 들던 외국어 수업과 달리 아산서원의 실용중국어 고급 수업은 나를 포함해 7명의 원생이 참여하는 소수 정예의 수업이었다. 평소 중국어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중국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긴장하게 되는데, 첫 수업에서 수강 인원이 적음을 보고 많이 당황했었다. 하지만 내 걱정과 달리 자오리쥬엔 교수님의 수업은 긴장할 이유가 없었다. 교수님께서 매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중국 문화, 역사, 정치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끔 이끌어 주셨다. 원생들은 넓게는 청년 실업, 미중관계, 대중문화에 대해서, 좁게는 연애, 가족 이야기



를 하며 의견을 나누고 서로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수님께서도 중국인으로서 느끼는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셨다. 어떤 수업 때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어떤 수업 때는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실용중국어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수업이 아니었다. 중국어로 교류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2015
1030

자기확신과 소통

서재
박 성 호

영어 프레젠테이션 수업시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으로 활약하신 나승연 교수님과 2002 월드컵 조직위원회 미디어국 의사담당 팀장을 역임하신 강민정 교수님의 팀칭으로 진행되었다. 원생들은 수업마다 자신에게 맞는 연설문을 선정한 뒤 청중 앞에서 실제처럼 연설해야 했다. 그 모습은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이후 두 교수님과 원생들의 피드백이 이어진다. 자신



의 부족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6주간의 수업을 거친 원생들은 각자의 부족함을 개선하여 눈에 띄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는 93%가 눈빛, 목소리, 보디랭귀지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스스로 확신이 없으면 온몸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다. 이번 수업을 통해 올바른 소통을 위해선 무엇보다 긍정적인 자기 확신이 전제되어야 함을 배웠다.

예절교육(1): 전통예절교육



정신을 담은 몸가짐

동재
안 소 정

지난날 한국 사람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바빠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 과거의 유물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예절의 경우 허례허식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나 역시 전통예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 중 하나였지만 이번에 성균관에서 수업을 들으며 전통예절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이 수업은 성균관 유생들의 도복을 입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들이 입던 비취색 도복을 입고 머리에는 유건을 쓰고, 어설피게 고름을 매면서 성균관 유생들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수업을 들었던 공간인 비천당에 앉아 수업을 듣고, 그들이 마시는 방법대로 차를 마셔보고, 절을 해보기도 했다. 이 체험을 통해 전통예절의 모든 과정이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의 정신을 담은 몸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는 절차인 전통예절을 좀 더 아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015
1016

예절교육(2):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



세계를 배려하는 방법

동재
박 은 영

지난 5주간 아산서원 제8기 원생들은 이성화 선생님의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들었다.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부터 시작하여 서양 문화권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오해를 사지 않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인사 방법, 식사 방법 외에도 비즈니스에 알맞은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등 다양한 면에서 서구 문화권의 매너에 대해 배웠다. 제8기 원생



들은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들으며 향후 해외 인턴십 때 귀중하게 쓰일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마지막 수업은 직접 양식을 먹으면서 진행되어 강의만 듣는 것보다 재미도 있고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많은 원생들이 즐거워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원생들의 직접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인턴십 과정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향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비록 짧다면 짧았지만, 이번 특강을 통해 몸에 익힌 매너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2015
1022

문화기행



2015
1024



좋은 시절,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

서재
전 재 권

단풍이 물드는 가을, 제8기 원생들은 안동·울산으로 문화기행을 떠났다. 기차를 타고 안동에 도착한 우리는 안동민속박물관과 월령교를 돌아본 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인 병산서원으로 향했다. 병풍처럼 산이 펼쳐진 병산서원의 절경을 곁에 두고 우리는 조선시대의 선비처럼 『대학』 경 1장 암송 시험을 치렀다. 밤에는 만대루에



올라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회마을을 방문했다. 흐드러진 단풍 속에서 아름다운 한옥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울산으로 이동한 우리는 현대중공업을 탐방하며 백사장에서 세계 일류기업을 일궈낸 아산 정주영 선생님의 도전정신을 느꼈다. 밤에는 원생들이 각자 준비한 시를 암송하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아쉬움을 안고 울산대학교로 향했다. 정주영 선생님의 사회환원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울산대학교에서 우리는 '아산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2박 3일간의 꿈 같았던 일정은 숲이 울창한 길을 걸어서 반구대 암각화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봉사활동(1): 현충원 헌화 및 청소 봉사



2015
0821

조국과 희생의 의미

서재
박 세 호

2015년 8월 21일 아산서원 제8기 원생들은 봉사 활동지인 현충원으로 향했다. 첫 야외활동이라는 생각에 들뜬 마음도 잠시,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문한 위패봉헌관의 엄숙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충분했다. 그곳에는 교과서 속 호국 영웅들이 아닌, 우리 주변 이웃처럼 평범한 모습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서려 있었



기 때문이다. 유해 한 점 찾을 수 없는 그들을 추억하려 유가족들이 놓고 간 편지와 사진과 꽃과 비문들. 그들의 삶이 마음에 남아 우리는 위패봉헌관을 쉽사리 떠나지 못했다. 우리의 임무는 장병묘역에 있는 화병과 조화를 거두는 일이었다. 산의 한 사분면을 다 차지하며 드넓게 펼쳐진 묘소는 장엄하지만,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동기 원생들과 함께하기에,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에 기쁘게 일할 수 있었다. 그렇게 첫 봉사활동은 조국과 희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 좋은 기회였다.

봉사활동(2): 고구마 수확 봉사

2015
0904



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할 줄 아는 인재가 되기를 특히 당부하셨다.

그 후 6명의 남자 원생들은 삽을 들고 보도블록 기초공사를 도우러 떠났고, 나머지 원생들은 고구마 수확에 참여했다. 의욕으로 가득 찬 마음과 달리 고구마 캐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성껏 상자를 채웠다. 어설프지만 서로 도우며 파란 하늘 아래서 한마음으로 수확에 열중하던 모습은 나의 마음에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았다. 함께하는 기쁨과 수확의 뿌듯함, 남은 농촌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우리의 첫 농촌봉사활동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2015
1114

봉사활동(3): 김장 준비 봉사



즐거웠던 고구마 수확

서재
김유림

아산서원에 입학한 지 어느새 한 달이 되어가던 9월 초, 우리는 농촌봉사를 위해 파주 교남어유지동산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영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담당 사회복지사님께 먼저 교남어유지동산에 관한 소개를 듣고 사회복지에 관해 궁금했던 점들을 자유롭게 여쭙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



어서 와! 김장은 처음이지?

서재
김태영

아산서원 제8기 원생들이 다시 방문한 교남어유지동산은 더웠던 늦여름과는 달리 가을바람과 울긋불긋 물든 산천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남을 돕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지만, 막상 남을 위해 일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더욱 의지를 불태우며 들어간 곳에서는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한 김치를 납품하고, 그 수익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헌하는 시스템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손발을 걷어 올렸다.



우리는 포장된 김치를 담을 플라스틱 상자를 2개 조로 나누어 깨끗하게 씻고 건조하는 일을 도왔다. 원생들은 한치의 결함도 없이 빛의 속도로 척척 일을 진행해 나갔다. 정해진 시간과 물량을 소화해 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을 마치며 서로를 격려하며 뿌듯해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보았고, 다시 한번 공동체의 소중함과 협동 정신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2015
1228

봉사활동(4): 『빅이슈』 잡지 홍보 봉사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서재
전재권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12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아산서원 제8기 원생들이 심 없이 외친 말이다. 홀리스의 자활을 돕는 잡지 『빅이슈』를 홍보하고 판매자를 응원하기 위해서 판매 도우미로 활동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빅이슈』 본사에서 사전교육도 받았다. 덕분에 봉사활동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길거리에 선다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활동 당일, 5명씩 6개 팀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장소에서 활동했다. 『빅이슈』 판매자를 응원하는 문구를 담은 피켓도 준비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몸은 얼어붙었고, 거리에 선 원생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도 있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고 피켓을 들었다. 매일 10시간씩 거리에 서서 자립을 외치는 판매자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착한 잡지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몸은 얼었지만, 마음

은 따뜻해졌다. 원생들이 취약계층에 대해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

2015
0818

문화체험(1): 공연 <2015 크누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관람



2015
0828

하나 되기

동재
오 세 규

2015년 8월 18일, 김덕수 선생님의 초청으로 관람한 <2015 크누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아산서원 원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중에서도 2부 '마당' 순서에서는 동양의 사물놀이와 서양의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악기, 그리고 연주자와 청중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하나가 되어 '화합'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무대였다.

전혀 다른 동서양의 음악이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함께 울리는 모습. 이질적인 것 같다가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소리에서 묘한 짜릿함을 느꼈다. 그 뿐만 아니라, 악



기와 하나 된 듯, 혼연일체의 경지에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장단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가히 압도적이었다. 관객석을 가득 채운 청중들은 공연을 났을 놓고 바라보며, 연주자들과 하나가 된 듯한 미적 경험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날의 '하나 됨'의 경험은, 앞으로 10여 개월간 동고동락할 아산서원 원생 30명이 공동체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이자 값진 밑거름이 되었다.

문화체험(2): 전시 <헨릭 뵘스코브> 관람



경계 없이 자유롭게 즐겁게

서재
전 헤 빈

헨릭 뵘스코브는 덴마크의 패션디자이너이며 음악가이자 순수예술가이다. 의상, 사진, 음악, 영상, 조형물, 심지어 냄새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작품들을 보면서 한 장르로 설명하기 힘든 그의 정체성이 이 전시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다. 다양성과 경계 없음이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시를 보면서 도리어 어떤 시원함을 느꼈다. 외부세계로부터의 자극에 자신만의 해석을 가미해, 오감과 장르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과감하게 표현하는 뵘스코브의 작품들이 자유롭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또 작품과 완전히 분리된 전시 분위기, 즉 캔버스 앞에 모여 십 초 남짓 그림을 바라보다 우르르 이동하는 감상이 아니라 함께 냄새 맡고 만져보고 이야기하는 분위기 자체를 작품에 포함하는 큐레이터의 설명도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친구들과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는 아산서원, 이 안에서조차 여전히 하나하나 틀을 세우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전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경계 없이, 자유롭게, 즐겁게!



2015
0830

문화체험(3): 공연 <마크 데미쉬 토크콘서트> 관람



피아노 선율로 마무리한 8월

동재
김 서 영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후, 마크 데미쉬 변호사님의 토크콘서트가 있었다. 변호사님께서 미국 노스브룩시전 시장이라는 경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력과 전 세계 40개국에서의 '세계평화와 친선을 위한 자선 콘서트 개최'라는 독특한 삶의 행보의 주인공이셨기에 만나기 전부터 어떤 분이실지 기대가 컸다. 또한 이번 시간은 여느 때와는 달리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이었기 때문에 더욱 색달랐다.

먼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쇼팽, 조지 거슈윈 등의 곡이 갤러리에 올려 퍼졌다. 서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듯했다. 이어진 대화 시간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가장 인상 깊은 연주회는 언제였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천재보다는 노력의 힘을 믿는 성실한 자세,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이야기 덕분에 아산서원에서의 3주 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화체험(4): 연극 <키 큰 세 여자> 관람

2015
1014



2015
1030

인생의 모든 순간은 소중하다

동재
김서영

10월 14일 저녁, 우리는 손숙 선생님의 연극 <키 큰 세 여자>를 관람했다. 1막에는 동시대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변호사, 50대 여성 간병인, 그리고 90대 여성 환자가 등장했다. 1막에 등장했던 환자가 병상에 눕자 2막에서는 그녀의 20대, 50대, 90대 자아가 동시에 등장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황으로 그리고 종으로 각 세대에 속하는 여성이 등장하여 '인생 각 지점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막이 내리고 나서도 우리는 한동안 연극의 감동에 빠져 있었다. 내게는 특히 2막이 인상적이었다. 그동안은 젊음만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데 2막의 50대 여인은 인생이라는 산의 정상에 서서 360도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반면 90대 여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청춘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단계는 의미가 있기에 매 순간을 소중히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다.

문화체험(5): 민화 및 사군자 그리기 체험



전통의 미, 조선의 멋

서재
변성지

2015
1127

문화체험(6): 전시 <아산 정주영 탄생 100주년 기념 사진전> 관람



아산의 영향력과 도전정신

동재
추재경

아산 정주영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되었다. 그분의 일생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맞닿아 있다. 이번 사진전은 아산 선생님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아산 백 년, 불굴의 개척자 정주영'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사진전에는 선생님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주로 전시되어 있었다. 선생님을 떠올리면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생각났었는데 가족과 함께 하신 사진이나 직원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에서는 마음 따뜻한 리더의 모습도 엿볼 수 되었다. 또한, 전시장 곳곳에 적혀 있는 명언을 통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의 관심이 온전히 나라의 발전에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전시관에서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 개인이 국가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해 보았다.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면 실

10월의 마지막 주, 고즈넉한 기와집으로 꾸며진 북촌문화센터에서 원생 30명은 평범한 백성들의 예술이었던 민화와 선비들의 예술이었던 사군자를 같이 체험했다. 민화는 알록달록한 색감을 곁들인 생동감이 넘치는 그림으로, 우리는 잉어 2마리와 연꽃잎으로 구성된 민화를 그렸다. 우선 한지 위에 먹지를 대고 그림의 본을 뒀는데, 잉어의 비늘이 너무 촘촘해서 따라 그리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동양화 물감은 우리가 쉽게 접하던 서양화 물감과 사뭇 달라서 물의 농도를 조절하고 색깔을 만들어 입히는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한편 사군자는 붓을 어떻게 쥐는지, 손에 힘을 얼마나 주는지에 따라서 선의 모양이 바뀌어 그리기에 까다로웠다. 하지만 절제된 아름다움이 매력적인 사군자를 보며 계속 연습해서 더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화와 사군자를 그리면서 조선의 멋과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었다.





로 놀라운 일이다. 아산 정주영 선생님의 영향력과 도전 정신을 상기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2015
1228

문화체험(7): 전시 <Really?> 관람



Life is short, art is long

서재
전혜빈

2015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았던 12월 끝 무렵, 막바지 까지 과제며 종업식 준비에 그야말로 버티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광화문에서 살 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도 서원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던 그 무렵 마지막 문화체험을 하러 모두와 전시를 보러 나간다는 사실에 전날부터 들떠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의 <Really?> 전시는 어떻게 보면 들떠 있던 기분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는 전시였다. 참치 통조림 안에 담긴 사람들, 낙태의 기억을 재현한 병실, 인생의 굴곡과 상처를 수놓은 조각보,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단면을 담은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몸을 웅크리고, 꼬불꼬불한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고, 미로와 같은 복도를 지나 찾아가듯 작품을 관람하게 하는 미술관의 독특한 구조는 그 안에 담겨있는 작품들과 닮아있기도 했다.



아기자기하고 예쁘기만 한 전시는 아니었음에도 날 추운 12월에 코트 바람으로 다 함께 미술관을 갔던 마지막 문화체험은 신기할 만큼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아산서원에서 5개월 동안 인문학을 통해 배운 한 마디, 학문에든 인생에든 답은 없으며 그 혼란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오히려 성장이 온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전시였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사물놀이 · 설장구



하나의 곡을 완성해 내는 과정

동재
조은채

총 12번의 사물놀이와 설장구 수업은 그동안 쉽사리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에 큰 흥미를 갖게 해주었다. 직접 장구와 북, 팽과리와 같은 전통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민족의 '흥'이 무엇인지 체험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물놀이와 설장구의 가장 큰 특징은 협동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실력이 뛰어난 연주자 1명이 훌륭한 연주를 하는 것보다도, 실력은 다소 부족할지 몰라도 여럿이 마음을 모아 하나의 가락을 만들어내는 일이 더 중요했다. 종업식을 위한 사물놀이와 설장구 공연



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전통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원생들과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각자 어려워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갔기 때문이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개성도 다양하지만, 협동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해가는 사물놀이와 설장구가 아산서원의 전체 과정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모든 원생들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봉산탈춤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겨, 열쑤!

서재
안소영

덩따~ 기덩따, 열쑤! 흥겨운 장구 장단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탈춤을 추고 있었다. 우리는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처음 탈춤을 접했다. 고루한 전통문화라고만 생각했던 탈춤을 직접 보고 배우니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장단에 맞춘 몸짓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흥과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물놀이와 탈춤 선생님께서 초청해주신 공연을 통해 더욱 탈춤의

매력에 푹 빠지기도 했다. 탈춤 수업을 통해 전통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도 버릴 수 있었다.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공연을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하나의 동작을 익히는 것도 어려워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끝없이 연습을 거듭했다. 춤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공연에 오르기 전의 설렘이란! 장단에 맞춰 두 마리의 사자와 함께 한 명의 목동이 되어 무대를 오르던 감동은 잊지 못할 것이다.



태극권



우리의 아침은 낮보다 뜨겁다

동재
양 상 민

태극권 수업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50분부터 7시 30분까지 약 40분 동안 이루어진다. 아산서원 국내 인문교육과정의 시작이자, 그 후로도 매주의 시작을 함께했던 수업인 셈이다. 단꿈 같은 주말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른 새벽부터 시작하는 태극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원생들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 아직 잠이 다 깨지 않은 채로 경희궁 뒤뜰로 올라간다.

태극권은 기존 무술들처럼 무겁고 어려운 권법이라기보다는, 부드럽고 고요한 움직임의 필요로 하는 운동이었다. 학창시절 축구부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나는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나가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극권은 새벽 훈련과 달리 가볍고 경쾌한 운동이었다. 기지개를 켜 상태에서 큰 원을 만들며 돌리는 자세, 몸을 구부려 말아 올리는 자세, 원숭이 자세, 호랑이 자세 등의 스트레칭과 기를 모으며 팔을 움직이는 자세들이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더불어 태극권과 운동에 관해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주었다.



팀스포츠(1): 체육대회

2015
0814



2015
1009



피구, 줄넘기, 꼬리잡기까지 다양한 종목들이 이어졌다. 체육대회라 하기에는 간소할 수도 있지만, 한 종목도 빠짐없이 30명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었다. 승패가 정해져 있긴 했지만, 경쟁보다는 유대를 느낄 수 있었다. 체육대회로 생긴 사소한 이야깃거리로 다 같이 웃으며 '함께'라는 기억을 또 하나 그릴 수 있게 되었다. 항상 체육대회는 경쟁의 장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다른 팀보다 더', '재보다 더'라는 생각을 견어내자 그 뒤엔 더 가치 있는 협동과 즐거움이 남았다. 결국 내가 속한 팀은 최종적으로는 졌지만 지고도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은 30명이 함께 만든 더 큰 경험 때문이 아닐까?

함께 뛰는 연습

동재
정 순 형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땀 흐르는 활동들을 피하고 싶었다. 그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체육관으로 향하는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원생들과 함께 같은 옷을 입고 걷기 시작하자 소풍 가는 유치원생처럼 들뜨기 시작했다. 우리끼리 흥흥 즐지어 시작한 체육대회는 남달랐다. 가벼운 춤과 함께 체육대회가 시작되었고, 이후

팀스포츠(2): 조정



조정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다

동재
양상민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도착한 날은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맑은 가을날이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안전 교육과 준비 운동을 마치고 로잉 머신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았다. 로잉 머신은 실제 조정과 같은 원리로 작동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감을 충분히 익힐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전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해서 움직여야만 했고, 앞사람과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노가 서로 엉켜 다칠 수도 있었다.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콕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다.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고 전체 호흡을 리드해야 했기 때문이다. 배 안에 있는 모두의 호흡이 하나가 되어야만 배가 빠른 속도로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었다.



조정은 협동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훌륭한 한, 두 사람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호흡을 맞춰야 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아산서원 제8기는 서로를 더 믿고 이해하며 협력할 수 있었다.

2015
1211

팀스포츠(3): 컬링



빙판 위에서 꽃피는 팀워크

서재
윤창배

태릉선수촌 컬링장에 도착해서 펼쳐진 얼음판을 보자마자 아산서원 원생들은 모두 동심으로 돌아갔다. 너도나도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져 보기도 하고, 누가 더 빨리 가는지 경주를 하기도 했다. 출근 TV에서만 보았기에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컬링을 직접 해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직접 체험해본 컬링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그 이상이었다. 스톤을 과녁 정 가운데 놓고 시작한 후에 더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모든 팀원이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리더는 작전을 잘 세워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스로어'는 리더의 지시에 맞게 스톤을 잘 굴리고, '스위퍼'들은 전략에 맞게 열심히 빙판을 닦는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팀스포츠를 즐겼다.

비록 짧은 두 시간이었지만 컬링을 하면서 같은 팀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어 작전을 궁리하고, 팀원이 던진 스톤이 잘 굴러가도록 열심히 쓸었다. 다른 팀의 스톤을 밀어내면 서로 열싸안고 좋아했다.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컬링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색다른 경험을 한 기억에 남는 하루였다.

자치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사회, 아산서원

서재
안소영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원생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아산서원이라는 작은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갔다. 공지 전달부터 행사, 그리고 일상까지 원생들이 참여하는 모든



일은 자치회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전체 원생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생일 축하 파티와 같은 자체 기획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원생 모두가 행복한 서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회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주의 숙제였다. 자치회는 소통의 장인 동시에 갈등의 장이었다.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어 더욱 발전되기도 했지만, 때때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었다.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이 시간이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아산서원 제8기 졸업식





Asan Washington Fellowship Program

Washington DC 인턴십 수기
Friday Program 수기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올해로 110년을 맞이한 AJC는 해마다 6월에 개최하는 Global Forum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외교관을 한 자리에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다. 나는 각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만나 관계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AJC에서 인턴 업무를 하면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 시야를 더욱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전문가들을 만나 각 국가 간의 관계와 그 지역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다. 한국과 동아시아에만 머물러 있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도와 이스라엘의 관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 미국·일본·호주의 관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한 국가와 타국의 외교관계는 결코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 지경학적 위치, 역사적 문제, 종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중첩된다는 것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다. AJC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대인의 민간 외교의 힘과 중요성을 보고, 국가와 지역을 벗어나 국제적인 안목을 갖는 인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동재
조성문



American Jewish Committee(AJC)는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유대인 인권 문제를 필두로 글로벌 고위급 외교를 폭넓게 수행한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AJC는 미국 내에 22개, 세계적으로 30여 개가 넘는 지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너무 당연한 것, 인권

73억 인구가 모여 사는 이 땅에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전쟁, 사형, 실종, 구금, 고문과 학대, 난민, 표현의 자유 박탈, 그리고 성차별에 이르기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는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도 벌어지고 있다.

인권.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누군가는 분명 지켜나가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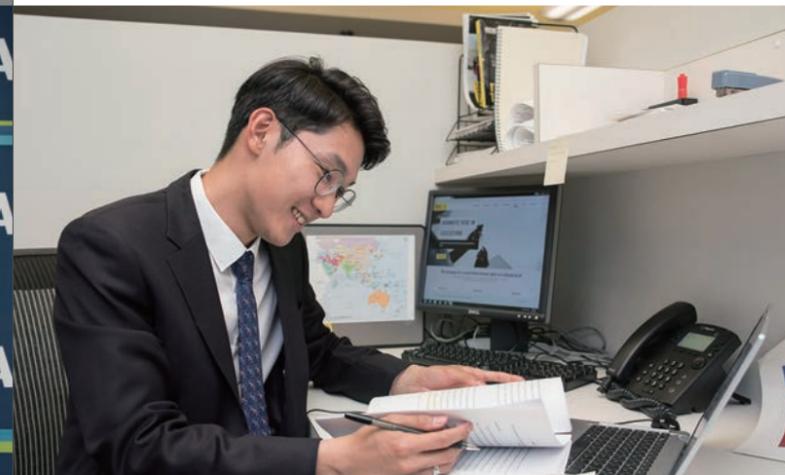
Amnesty International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인권단체로 유엔 세계 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비정부 기관이다.

동재
오세규



일이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길을, 가시밭 속 타오르는 작은 촛불처럼, Amnesty International은 오늘도 곳곳이 걸어나간다.

큰 이야기 속에서 작은 이야기를 지켜내기 위해, 단 한 명이 고통 받는 부당한 차별일지라도 눈 감지 않기 위해서, 크고 강한 이들 앞에서도 당당히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리고 삶의 '맛'보다는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 바로 Amnesty International이다.



Atlantic Council

Atlantic Council은 국제안보와 세계경제 번영 및 미국과 아틀란틱 연합의 리더십 발현을 위한 각종 국제이슈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서재
김유림



주목할 기관으로 여겨지는 만큼 이 기관이 지닌 성장에 대한 욕구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기관이 새롭게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대해서 모든 스태프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기도 하며, 인턴과 직원 계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세션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인턴들이 자신의 업무에 한정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향후 경력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도전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한다. 깔끔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형성된 끈끈한 동료애는 5개월의 인턴십 생활을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새로운 분야를 향한 향해

Atlantic Council은 빠르게 성장하는, 눈여겨봐야 할 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예로 워싱턴 DC 싱크탱크 최초로 예술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지역이던 대서양을 넘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현재 내가 속한 Brent Scowcroft Center 내의 Asia Security 부서도 하나의 Center로 독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서재
전재권



Atlas Service Corps는 2006년에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혁신과 협력, 21세기 과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이다. Atlas Service Corps는 사회공헌 분야의 리더가 되고 싶은 인재들에게 약 12 ~ 18개월에 걸쳐 미국 내 선진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답은 사람이다

세계 곳곳에는 경제, 교육, 인권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혼자 힘으로 또 동시에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Atlas Service Corps는 이 방법을 사람에게서 찾았다. 우리 기관은 전 세계 비영리 분야의 인재에게 미국의 우수 기관에서 일할 기회 즉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능력을 배양하고 발전된 업무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펠로우는 펠로우십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자신이 배운 기술과 지식을 고국의 동료와 나눈다.

나는 Atlas Service Corps의 Program Team 인턴으로 일하면서 기관의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을 도왔다. 펠로우의 선발, 입학부터 그들의 현지 적응과 교육 그리고 졸업까지, 이곳이 어



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펠로우와 교류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신념으로 사는지 들을 수 있었다. 기관의 크기는 작지만,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Atlas Service Corps에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도 배웠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사람을 발전시키고, 사람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에 대답하는 이 기관에서의 5개월은 값진 시간이었다.



CARNEGIE ENDOW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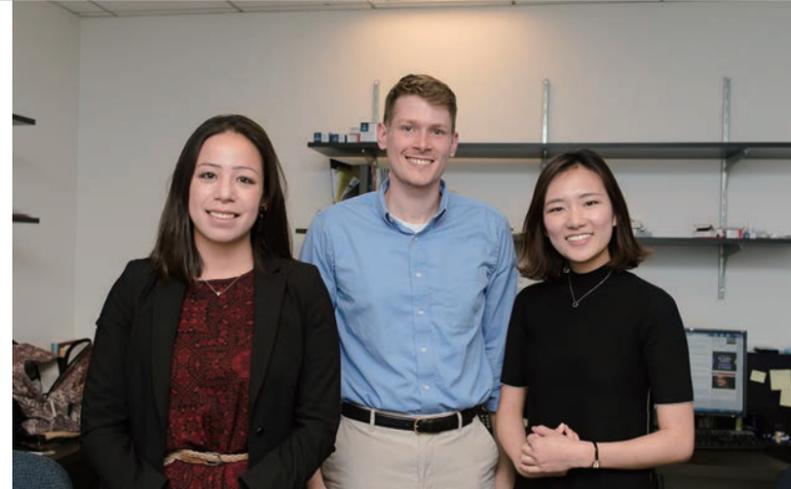
FOR INTERNATIONAL PEACE

CEIP는 1910년에 설립되어 국가 간의 협력 증진과 국제평화 촉진에 기여하는 연구와 출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사인 워싱턴 DC뿐 아니라 모스크바, 베이징, 베이루트, 브뤼셀에 지사를 둔 글로벌 싱크탱크이다.

서재
변 성 지

국가 대 국가의 구도를 뛰어넘는 관점

‘글로벌 싱크탱크’인 CEIP는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곳곳의 사안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이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기관이지만 미국의 시각에서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구도를 뛰어넘는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첫 미팅 때 나는 CEIP의 특징으로, 연구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존중



하되 그 연구 성과가 사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경험한 이곳은 그 한 줄의 요약에 잘 부합하는 기관이었다. 다양한 국적, 인종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연구를 하되, 자유롭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듯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경험하면서 나 또한 나의 이상에 대해 고민하고, 동시에 이를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CARNEGIE ENDOWMENT



동재
이 상 태

나는 Nuclear Policy Program(NPP), Asia Program(AP) 그리고 Cyber Policy Initiative(CPI)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 조사를 도와주며 전문성을 더 높게, 더 깊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고 배웠다. 각종 콘퍼런스, 정기적인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인트라넷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있는 전문가들과 연구를 수행하고 교류를 하는 모습은 결정적인 정책 제언들이 단순히 뛰어난 한 사람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수많은 정보의 수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다.

CEIP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현장을 경험하다

워싱턴 DC에는 다양한 분야의 싱크탱크들이 많지만, 내가 몸을 담았던 CEIP에는 여타 기관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세계평화를 위한 초당파적 연구기관을 세우고자 하는 구상으로 시작해 1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에 총 6개의 거점을 개설하는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5개월 기간 중에 마침 인도 뉴델리에 새로운 거점 싱크탱크가 문을 열었기에 CEIP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언론들이 사회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한다면, 연구 기관들은 평화에 영향을 끼치는 핵 안보, 환경에너지, 민주주의와 대륙별 이슈들을 신속하게 브리핑하고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사실 전달을 넘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에 거점 기관을 개설하여 현미경 들여다보듯 정확하게 분석하려는 CEIP의 노력은 끊임없이 피부에 와 닿았다.





18세기 영국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서한 모음집 *Cato's Letters* 에서 그 이름을 따온 Cato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립된 비당파적인 싱크탱크이다.

서재
우진영



정부의 역할과 자유무역의 중요성

Cato에서 나는 서른 명의 다른 인턴들과 함께 정치, 경제, 역사와 철학을 다루는 폭넓은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매주 Cato의 연구원들이 주최하는 미국의 여러 공공정책 세미나를 듣고, 인턴들과 자유토론을 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의 중요성, 제한된 정부의 역할을 알아가면서 직접 공공정책을 분석하고 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알아 갈 수 있었다.

또한 평소의 관심사에 따라 Herbert A. Stiefel Center for Trade Policy Studies에 배정받은 나는 부서 연구원들을 도와 통상·무역에 대해 자료조사를 했다. 특히, 국가 간 분쟁을 담당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내 분쟁해결기구(DSB)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대학교 국제법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법 체계를 조사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본문을 분석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Cato의 입장에서 TPP의 장단점을 조사하며 앞으로의 미국 통상·무역 정책 방향을 논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의 세계, CIPE

“At the end of the day, it's all about proposals” 첫 출근 날, 프로젝트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상사께서 하신 말씀이다. 지금껏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며 보내온 나는 그 말을 흘려 들었었는데, 인턴십의 마지막 달로 접어드는 지금, 그 말의 무게를 이제 약간은 알 것 같다. 환경, 인권, 개발 등 어떤 분야가 되었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기업 활동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움직임들이 ‘프로젝트’를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정치와 행정의 중심



서재
이지연



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CIPE)는 기업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1983년에 설립된 이래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 워싱턴 DC에서, 인류 사회 혹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채택되는 정책 및 사업들이 거대한 정치사상적 패러다임의 아래 있으면서도 어떠한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는지, 또 좋은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앞으로 나의 여정에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CSIS |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1962년에 설립된 이래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 국제기구와 민간 영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동재
김서영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

외교·안보 분야의 세계적인 싱크탱크, CSIS에서의 인턴 활동은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나누고 있는지 직접 목격할 소중한 기회였다. 이전에는 주로 교실에서 책과 이론으로 공부를 해왔었는데, CSIS에서 직접 중요 뉴스를 꾸준히 수집하고 그 내용을 미팅에서 브리핑하며 현실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에 눈뜰 수 있었다. 또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대중에게는 잘 공개되지 않는 회의들까지도 참관하면서, 미국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다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살아있는 경험담과 통찰력 있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특강, 진로 상담, International Strategic Crisis Negotiation Exercise 등 다양한 인턴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서재
윤창배



워싱턴 DC 최고의 두뇌집단

나는 CSIS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다. 100개가 넘는 콘퍼런스에 참여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일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으며, 시각 자료와 영상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정책을 더욱 쉽게 알리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촬영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 각 분야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았고, 그들의 생각들을 카메라에 줄곧 담았다. 멀게만 느껴졌던 미디어였지만 차근차

근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실력이 많이 늘어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 5개월간 iDeas Lab에서 근무한 경험은 나의 삶과 안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워싱턴 DC 최고의 두뇌집단에서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정치와 외교 분야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항상 가슴이 뛰는 일이었다.





CNI는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전 미 대통령이 1994년에 설립한 중립적 성향의 비영리 기관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서재
조민제

더욱 더 깊게, 더욱 더 넓게

CNI는 주로 동아시아와 관련된 이슈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공화당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나의 경우 Daily 업무는 없었고 Weekly 업무만 있었다. 특정 주제를 정한 뒤 그에 대해 A4용지 4 ~ 5장 정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나의 업무였다. 주제를 선정 후 보고서를 쓰려면 인터넷과 서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아야 한다. 한글로 관련 기사를 읽어보고 영어로 된 기사도 읽어보면서 한국과 미국

사람들이 각각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5월에 기관을 후원해주는 분들을 위한 만찬이 열려 그 초대장을 만드는 작업을 돕기도 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심지어 한국 분들도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기관은 약 2달간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2달에 1번씩 *THE NATIONAL INTEREST* 라는 잡지를 발행하며 동아시아 이슈에 대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기관의 규모는 작지만, 중요한 콘퍼런스들을 개최하고 연구 결과를 꾸준히 출간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더 넓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울 수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 미국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다.



서재
정서희



EWC는 1960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 학자들을 초청하여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미국과 해당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의 교류

문화는 서로 다른 나라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가장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문화의 교류는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이나 언어, 여행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WC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교류를 기사의 형식으로 보여준다.

EWC 워싱턴 DC 지부의 Asia Matters for America 부서에서는 최근 일어나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지는 동서양 간 교류에 관한 기사를 작성해 이를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게재한다. 기사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주제가 양 국가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도 직접 적절한 주제를 찾아 기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막연했던 문화 교류의 틀을 잡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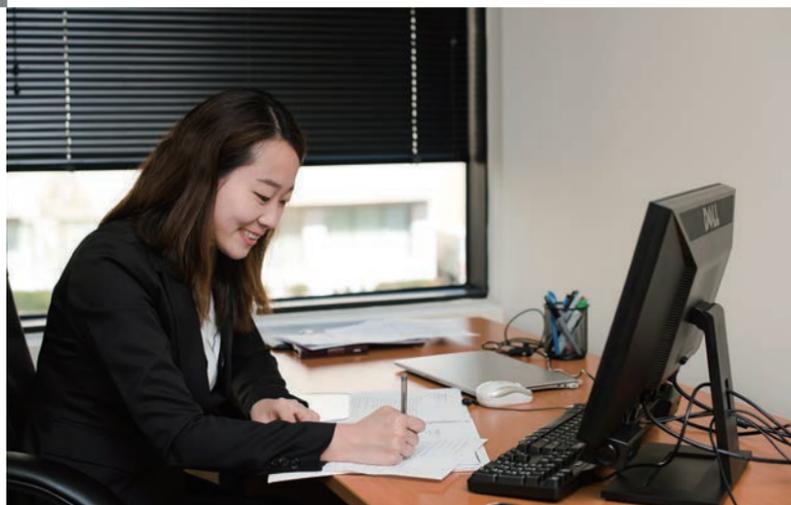


서재
정혜성



The Foreign Policy Initiative(FPI)는 비영리 싱크탱크로 미국의 외교, 경제, 군사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고 민주주의 동맹국과의 협력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가진다. 이때 받을 수 있었던 세심한 피드백은 우리를 한 걸음 더 발전하게 하는 발판이 되었고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했다. 또한, FPI Hill Briefing 외에도 기관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자료들은 싱크탱크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었다. FPI에서의 인턴 생활은 어제보다 더 성장한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준 다채로운 시간이었다.



어제보다 더 성장한 오늘

FPI는 외교와 정책, 안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이다. FPI에서 인턴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수평적인 분위기였다. 자연스럽게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는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유연성으로 이어졌다.

상사와 인턴들이 매주 가지는 회의에서는 각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돌아가며 브리핑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는 시간을

작지만 강한 조직 KEI

출국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미국의 수도에서 한국, 한국인에 대한 관심과 위상은 어떠할 것인가?'는 걱정에 잠이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견 기우에 불과했는데, '한국의 모든 것'을 다루는 KEI에서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에서 마주한 KEI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담했지만, 그 덕에 여러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적은 수의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조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만을 다루는 기관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는데, 그들과의 협력 덕분에 한국 관련 이슈들을 빠르고 풍부하게 접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 행사가 있을 시 국내외 연사들은 KEI를 반드시 거쳐갔다. 네트워크의 주인공으로서 한국 이슈에서만큼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서재
박세호



1982년에 설립된 KEI는 한국과 미국의 학문 및 정책 커뮤니티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또한 유연한 조직의 힘을 배울 수 있었다. KEI는 인턴도 회의에 참여해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와 일정을 발표할 정도로 열린 조직체계를 가졌고, 업무 참여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 만큼 책임감도 깊은 조직문화를 가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비록 인턴이었지만 크고 작은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KEI에서의 가장 큰 선물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난 것이었다. 이역만리 타국 땅이었지만, '멋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들과 함께 일하기에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 있었다.

NEW AMERICA

New America는 1999년 설립된 비영리, 초당파적 싱크탱크로 21세기 미국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며 외교정책, 안보, 교육 및 IT 분야를 다루고 있다.



동재 박규민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기

옛말에, 보통의 의사는 발병한 뒤 치료하고, 뛰어난 의사는 발병 전에 미리 다스려 치료할 일이 없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험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이버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이버 공격 혹은 관리 부주의로 인한 서버 장애와 정보 유출 등의 사건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때그때 수습만 할 뿐,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건 수습보다 예방에 집중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New America에서 근무하며 나는 미국이 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 사이버 보안을 통해 예방적 관리에 대한 성과보수를 주고, 버그를 찾으면 현상금을 주는 Bug-Bounty program으로 법 바깥의 해커들을 법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저 소수의 화이트 해커들이 사이버 공간을 가꾼다고 생각했던 것은 잠시,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물리적 삶이 사이버 공간에 점점 더 녹아드는 만큼, 관리하는 데 중요해진다는 교훈을 얻은 시간이었다.



G | M | F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STRENGTHENING TRANSATLANTIC COOPERATION

GMF는 정치, 경제, 외교, 에너지 등 대서양 국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미국과 유럽 간의 협력과 이해를 도모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다.



동재 양상민

미국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보다

GMF는 Marshall Plan의 25주년 기념으로 서독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대서양 연안 국가들 간의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이다. GMF의 직원 대부분은 미국 또는 유럽국가 출신들로 동양과 사뭇 다른 서양의 문화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나는 GMF의 Asia Program 인턴으로 근무하며, 이제껏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의 유기적인 국제관계에 대하여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GMF의 브뤼셀 포럼이 끝난 후 유감스럽게도 브뤼셀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GMF의 본사와 브뤼셀 지사의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서로의 긴박한 상황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비록 먼 거리에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동료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서재
김태영

STIMSON

The Henry L. Stimson Center(Stimson Center)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장관이었던 Henry L. Stimson의 신념을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실용적인 국제문제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싱크탱크이다.

Stimson Center, Global Security

전 세계의 질서, 안정,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안보 및 국제관계분야 석학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Stimson Center에 모인다. 현재, Stimson Center는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부 또는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워싱턴 DC의 중요한 싱크탱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부서는 대륙별, 지역별로 나누어지며 부서마다 최고연구위원이 있고 그 밑에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보조연구원과 인턴들이 있는 구조이다. 인턴들을 위한 사무실과 프로그램이 잘 조



직되어 있는 편이고, 직원들을 Stimsonites라고 부르며, 편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추구한다.

또한, Stimson Center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중동으로 나누어진 대륙별 안보 연구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우주, 해양, 식량, 무기거래 관련 안보 등 특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안보와 함께 연결 지어, 예상되는 사회적, 정치적, 물리적 등 여러 문제를 미리 분석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살기 좋고 안전하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안보'라는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1973년에 설립된 The Heritage Foundation은 미국 내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및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관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기관이다.

서재
박성호

보수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

나는 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보수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매주 Principles Lunch를 통해 보수주의 철학을 학습하고, Policy Briefing에서는 그 가치들이 어떻게 경제, 외교, 복지, 환경 등의 분야에 정책적으로 반영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아울러 각종 콘퍼런스, 이벤트에서 유명 인사들을 만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비전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Asian Studies Center에서 일하며 외교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를 도왔다. 독일 통일과 아랍의 봄 사례를 비교하여 'Technology's role in gett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를 주제로 상사와 함께 이슈 브리핑을 출간하였다. 방글라데시의 정치적 혼란에 얽힌 종교박해를 조사하였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인도·파키스탄·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대한 청문회 자료를 준비하기도 했다.

정치와 외교의 중심지 워싱턴 DC에서의 인턴 생활은 한반도 이슈에만 머물러있던 내 시야를 전 세계라는 무대로 넓힐 소중한 기회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다.



서재
안 소 영



1973년에 설립된 The Heritage Foundation은 미국 내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 중 가장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 작은 정부 및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관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기관이다.



보수주의의 가치로 세계를 바라보는 미국

The Heritage Foundation은 보수정책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지난 40년간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보수주의의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연구, 제안하는 동시에 3개월 단위로 매 기수 60명 이상의 인턴들에게 보수주의 교육을 제공한다. 우리는 다른 인턴들과 함께 미국의 독립 선언문과 헌법에 기반을 둔 원칙과 경제, 교육, 환경, 보건, 외교 및 안보 영역에서 보수주의가 실현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보냈다.

미국의 보수주의의 시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였다. 나는 Asian Studies Center에서 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도와 함께 일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한국의 주변국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해볼 기회가 많았고, 이는 한반도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관해 고민의 씨앗을 던져주었다. 또한, 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난민, 인권 문제를 접하면서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내 시야도 넓힐 수 있었다.



Hudson은 국제안보와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자유 증진을 지향하는 독립 싱크탱크이다. 특히 국방, 국제관계, 경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각종 출판, 콘퍼런스, 정책 브리핑 등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정치, 경제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미래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재
추 재 경

세계의 안보 상황

Hudson은 1961년 Herman Kahn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이다.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학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초 K Street에 있던 옛 건물을 떠나 Pennsylvania Avenue로 이사하였다.

내가 근무했던 Center for Political Military Analysis는 주로



세계의 안보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특정 지역만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많은 인턴이 이 센터에 속해있다. 나는 주로 북한과 동아시아 안보와 핵 안보를 조사하는 일을 맡았고, 논문의 주석이 올바르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다양한 기관을 다니며 행사에 참여하는 일도 많았는데, 이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한 5개월을 보낼 수 있었다.



TH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Advanc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n U.S.-Asia Relations

미국-아시아 관계 증진에 있어 두드러진 활약을 했던 Mike Mansfield 전 상원의원과 그의 부인 Maureen의 정신을 기려 설립된 Mansfield Foundation은 미국과 아시아 관계에 있어 국가 및 국민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독립적인 싱크탱크이다.

서재
허두혁

념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국과 베트남과 같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까지 교류 프로그램의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다. 동아시아가 점차 중요해지는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속에서 Mansfield Foundation이 수행하는 역할은 날로 막중해지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근무하며 사람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사명도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기관에서의 근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미일동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관찰할 기회이기도 했다. 규모는 작지만, 훌륭한 스태프들과 가깝게 소통하면서 각 분야에서 동아시아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제 근무를 마무리하며 광부 출신이었지만 끝내 외교관으로 본인의 소명을 다 했던 Mike Mansfield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Mike Mansfield를 기리며

Mansfield Foundation은 11년 동안 주일 미국대사를 역임하였던 미국의 외교관 Mike Mansfield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싱크탱크이다. Mike Mansfield는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최장기 주일 미국대사로 봉직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은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본 기관은 그의 이러한 신



한 사람의 울림

RFK Center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Robert F. Kennedy의 꿈을 좇는 기관이다. 우리 기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신뢰한다. 정의로운 신념과 의지를 가진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국 인권 운동가 교육 및 변호 업무와 인권상 수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한다. 더불어 정의로운 미래를 꿈꾸는 젊은 리더를 만들기 위하여 전 세계에 걸친 인권 교육으로 인권 운동에 이

바지하고 있다. RFK Center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사명감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다. 직급에 상관없이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회의 분위기는 이곳의 목적과 그에 대한 태도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에만 집중해온 내게 이러한 믿음은 낯설었다. 하지만 자신이 맡은 바에 관해 최선을 다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막연한 꿈을 향해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개인의 작은 몸짓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나'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변화된 내일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동재
정순형



Robert F. Kennedy Center for Justice & Human Rights (RFK Center)는 Robert F. Kennedy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인권 증진을 통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재
전혜빈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HRNK)는 북한 인권의 신장을 위해 외교 및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기관으로 북한 세습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식량분배 왜곡, 탈북난민의 어려움 등을 다룬 연구와 출판이 주된 활동이다.



조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북한 인권에 대해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 모든 스태프가 한국 이슈와 인권 전반에 관심이 많고, 기관 분위기도 굉장히 수평적이고 가족적이다. 한국어를 하는 것이 업무 능력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기도 하다. 나에게 HRNK는 북한 인권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막연한 관심에 더욱 깊이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으며,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 준 곳이기도 하다.

역사 연구의 중심지

출근 첫날, Wilson Center 사무실에 걸려있는 북한의 포스터들과 책들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남한만의 문제인 것 같았던 북한은 미국의 냉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나라였다. 한국과 여러 공산 국가들의 외교문서를 정리하고 문서보관소에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남북한 문제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었던 귀중한 경험이었다.

정책과 안보에 집중하는 다른 싱크탱크들과 달리, Wilson Center는 학구적인 주제와 역사 문제를 더 많이 다룬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이나 중동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의 콘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었다. 우리 부서 또한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영화 '국제시장' 상영회를 기획했는데, 다른 기관의 인턴들이 많이 와서 한국 전쟁과 냉전 당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동재
김규은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Wilson Center)는故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미국 의회가 1968년에 설립한 정책기관으로 외교, 안보, 냉전사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지식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평소에 접하기 힘든 외교문서나 북한 책들을 보게 되어 학문적으로 많은 자극이 되었다. 논문 주제를 '북한 문학'으로 정해 더 깊이 탐구할 수도 있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Wilson Center에서의 근무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Wilson Center)는故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미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미국 의회가 1968년에 설립한 정책기관으로 외교, 안보, 냉전사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지식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학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등재
박은영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

Wilson Center에서 아산서원 원생들이 맡은 주된 업무는 한국과 여러 국가의 70, 80년대 외교문서를 정리하고 문서보관소에 올리는 작업이다. 한국이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학교 역사 수업과 아산서원에서의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배운 바 있었으나

미국이,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특히 대외적인 시각이 아니라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그렇기에 Wilson Center에서의 인턴 활동은 매우 귀중한 경험이였다.

또한 Wilson Center는 이름처럼 ‘학자’들의 모임이기에 다른 기관에서 접하기 힘든 다채로운 주제들에 대한 강연 및 콘퍼런스가 많이 열리고, 이 주제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롭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나 자신 또한 전보다 더 깊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향후 학문을 할 때도 단순히 나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탐구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등재
박규민

태풍이 불고 있다. 번듯한 CEIP는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Douglas H. Paal 부회장님께서 우리를 한반도에 불어닥치는 폭풍 속으로 안내해주셨다.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를 재단하고, 한국은 악전고투 중이다.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부회장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담담히 말씀해주셨다. 그 후 원생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햇볕정책의 성과가 무엇인지, 중국과 러시아를 6자회담에서 더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수많은 질문들이 오갔다. Ronald Reagan 등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를 거치며 아시아 전략을 주도하신 부회장님께서 이에 대해 해주셨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저 숙일 때는 숙이고, 정신 차리고 한 발 한 발 내디디어 바람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다. Douglas H. Paal 부회장님의 특강은 우리가 내디디어야 할 길에 빛을 비추어 주었다.

Douglas H. Paal, CEIP 부회장님 특강
국제정세의 폭풍 속에서



동재
이상태

미국이 보아온 북한, 미국이 만나온 북한에 대한 이해는 Sydney Seiler 특별보좌관님께 60-24 공식으로 통한다. 60년 이상의 대북 정보 수집과 24년 이상의 대북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연사님께서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북한에 대해 이해하고 계셨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나쁜 짓을 저지른 아이에게 상을 주지 않는 정책이다. 북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계신 특별보좌관님으로부터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니, 1월 초 북한이 실행한 제4차 핵실험과 앞으로 있을 안보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가라앉았다.

우리는 대북정책하면 곧잘 눈에 띄게 발전하는 협상 과정이나 이상적인 목표가 현실화되는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특강을 통해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정보를 많이 수집했다면 결정을 내리기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만 하는 변수가 대단히 많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 지가 관건일 것이다. 정책 입안, 그중에서도 안보 분야의 정책 입안에 대한 통찰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Sydney Seiler, 미 국가정보국 특별보좌관님 특강
미국의 對 북한 이해와 '전략적 인내'를 듣다



The Library of Congress 방문
아름답고도 야심에 찬 지식의 저수지

동재
김서영

워싱턴 DC에서 제8기 원생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첫 금요일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사실 큰 기대를 했다가보다는 그저 규모가 큰 도서관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건물과 직접 마주하자 넋을 놓고 안내해주시는 분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끌어모아 간직하려고 하는 욕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기능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놀라기도 했다. 안내 봉사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소양과 경험을 쌓은 분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하는 것이고, 사전에 교육도 장기간 받는다고 하셨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은 이렇게 지식과 정보의

총 집결지를 자랑스러워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KEI 모의 6자회담 참여
6자회담이 이렇게 유쾌할 수만 있다면

서재
박 세 호

KEI 모의 6자회담은 워싱턴 DC에서의 인턴십 경험에 국내 인문교육과정 시절의 열정을 담을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만 광화문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토론과 차이가 있다면 원생 모두에게 각자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목표가 부여되었다는 점이었다. 며칠 전 받아 본 6자회담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이어진 후 시작된 시간은 치열한 전장과의 같았다. 숨겨진 의도와 전략적 선택에 따라 합중연횡이 난무했고, 6자회담 중에도 양자, 3자회담 등이 새로이 만들어지며 토의는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한 팀은 비현실적인 최선 대신 차악과 최적을 지향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나, 실제 회담이 이렇게 유쾌한 게임과 같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에 참석하는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절

박한 사정을 안고 계량적이지 않은 유무형의 가치들을 교환하기 때문이다. 이번 모의 6자회담은 다자회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야 할지 배운 소중한 기회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의 선의를 기대하거나 악의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크고 작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균형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재
조 민 제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에 오기 전 내가 궁금해하던 질문 중 하나였다. 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북한, 일본군 위안부, 한강의 기적, K-pop, 김치, 비빔밥, 불고기’ 외의 한국 문화에 대한 대답은 거의 없었다.

국가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턴십 기관에서 같이 근무하는 친한 동료들을 초대해서 봉산탈춤과 사물놀이 공연을 먼저 선보이고 음식을 대접한 후, 각자 맡은 부스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소

개했다. 나는 한글로 이름을 써주고 한글이 어떤 글인지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외국인들이 한글을 신기해하고 한글로 쓰인 자신의 이름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에 큰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팽과리와 장구를 치면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을 보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개하여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척 보람차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 남은 시간 동안 워싱턴 DC에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어떤 나라인지 알리는 것이 아산서원 제8기 워싱턴 펠로우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Asan Academy Networking Mixer 개최
Map your Seoul



서재
전혜빈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 브람스가 청년 시절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1번. 워싱턴 DC에서 봄을 맞은 우리와 잘 어울리는 테마의 National Symphony Orchestra 공연을 관람하고 왔다. 음악 자체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귀까지 빨개져 천장으로 팔짝팔짝 뛰면서 신이 났던 백발의 지휘자였다. 화폭 앞에서 붓을 휘두르는 화가같이, 요술 지팡이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조물주같이 음악 안에 폭 잠겨서 말 그대로 뛰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는 말을 10번쯤 했다.

워싱턴 DC에서의 5개월, 넓은 세상에서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늘려가는 더없이 좋은 과정이지만 때때로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압박에 눌리기도 한다. 그런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음악을 듣고 있다가 어찌면 단순하게 순간에 몰입하고 즐기는 게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2개월 남짓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와 신선한 전환을 선물해 준 공연이었다.

National Symphony Orchestra 공연 관람
몰입하기, 즐기기



CSIS 문화교류
CSIS 인턴들과의 만남

서재
윤창배

30명의 아산서원 제8기 원생들은 워싱턴 DC 혹은 베이징에 있는 각자의 기관에서 대부분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항상 분야의 글을 접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난하면서도 힘이 실린 글을 쓸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CSIS에 있는 수많은 인턴들 또한 원생들과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시고자 CSIS에서 근무하고 계신 Matthew P. Goodman 정치경제 수석연구원님께서 'Policy Writing'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 주셨다. 원생들은 강의가 시작되기 전 CSIS 사람들에게 아산서원의 목표와 교육과정, 그리고 우리가 왜 워싱턴 DC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뒤이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강의가 이어졌다.

강의가 끝난 후 준비된 다과와 함께 CSIS 인턴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졌다. 서로 국적도 다르고, 출신과 전공도 다양하지만 싱크탱



크의 인턴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섞일 수 있었다. 북한 문제 혹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고,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마음껏 물어봤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기에 여운이 길게 남는 금요 프로그램이었다.



AJC 오찬 간담회 참여
AJC에서의 점심식사

동재
추재경

조성문 원생이 인턴십을 하는 AJC는 유대인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들어왔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기관이 운영되는지는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점심을 통해 AJC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유대인들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시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Council of Korean Americans에서도 나와 강연을 해주셨는데, AJC가 지금까지 일해온 것을 본받고 있다고 하셨다.

점심시간에 옆에 앉은 AJC인턴들 간의 대화도 이스라엘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관계에 대한 강연을 통해 세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서재
우진영

Eagle Hill Farm의 Annie와 Steve는 한국에도 비슷한 농장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우리를 반겼다. Eagle Hill Farm은 은퇴한 경주마, 학대 받는 말을 포함해 유기된 말을 구조하고 매년 약 백 마리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는 농장이다.

말을 보살피는 것은 고된 일이다. 하루 두 번 수십 마리 분의 사료를 준비하고 말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부터 말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농장을 지었던 것도 아니다. 한두 마리씩 데리고 오다가 어느 순간 보니 오늘날의 농장이 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Annie와 Steve는 자신들의 신념대로 말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었다. Eagle Hill Farm에 있는 말들은 원생들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쉽게 다가와 콧바람을 불며 장난쳤다. 이전에 어느 주인, 어떤 환경에 있었든 지금은

말들이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일에 평생을 바쳐온 Annie와 Steve 부부의 노력을 느낄 수 있는 감명 깊은 시간이었다.



Eagle Hill Farm 방문
말(馬)에게 사랑의 말(言)을



동재
양상민

Shenandoah Valley 문화기행 1달 전,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Shenandoah 국립공원의 문화기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원생들은 현지 뉴스를 통해서 이 국립공원이 여의도 면적의 5배 정도 되는 4천 에이커가 불에 타버렸으며, 현재 계속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출발 몇 주 전 산불이 진화되었고 우리의 문화기행 일정 및 코스를 진행할 장소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박 3일간의 이번 문화기행은 우리 제8기 워싱턴 펠로우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기회가 되었다. 5명씩 한 조를 이루어 스카이 드라이브의 멋진 풍경들과 다양한 야외활동을 만끽했고 바비큐 파티의 저녁식사는 문화기행의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저녁 식사 이후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서로 앞으로의 꿈꾸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 문화기행이 끝나면 이제 약 3주 후 워싱턴 DC를 떠나게 되지만 다시 각자의 목표를 향해 새롭게 시작하자는 약속을 하며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Shenandoah Valley 문화기행
Begin again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방문
기억할 의무

동재
박은영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미국의 Memorial Day에 우리는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을 방문하였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퇴역군인들과 각양각색의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모델들이 모여 이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과 희생되신 분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을 둘러본 후에는 추모 행사에 참여하였다. 잠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내리쬐는 햇볕이 강렬하기도 했지만 모든 원생들은 힘든 내색 없이 약 2시간 동안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행사에 임했다. 행사의 시작,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몇몇 원생들은 엄숙한 마음으로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에서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모두 잃으신 퇴역 군인 William Weber 대령님과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신경수 육군소장님의 연설을 들으며 다시 한 번 남의 나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떠난 군인들의 희생에 감사하게 되었다. 또한 6·25 전쟁에서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사

망한 군인들의 이름과 숫자들을 살펴보면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는 절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자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었다.





Asan Beijing Fellowship Program

Beijing 인턴십 수기
Friday Program 수기



기금회중심망(China Foundation Center, CFC)은 중국 내 사회적 재단 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재단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공공 자선 단체이다. 기금회중심망은 중국 내 사회적 재단의 재무 상태, 공익 사업 현황, 기부금 등을 공개하여 재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기관 내 모든 직원은 온종일 듀얼 스크린을 바라보며 빠곡한 숫자와 씨름한다. 그리고 지루할 만큼 비슷한 숫자들을 끊임없이 정리한다. 기관의 부총재는 직원들에게 숫자로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중국 내 공익 사업의 선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발전을 도모한다. 최근 중국 사회는 공익이라는 가치에 집

동재
김진영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CFC는 중국 내 설립된 재단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공공 자선 단체이다. 중국 사회 내 공신력과 비영리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지만, CFC의 자리는 항상 '공익 전선'의 전방이 아닌 후방이다.



중하고 있으며, 공익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곳 CFC에는 자신의 신념으로 숫자를 통해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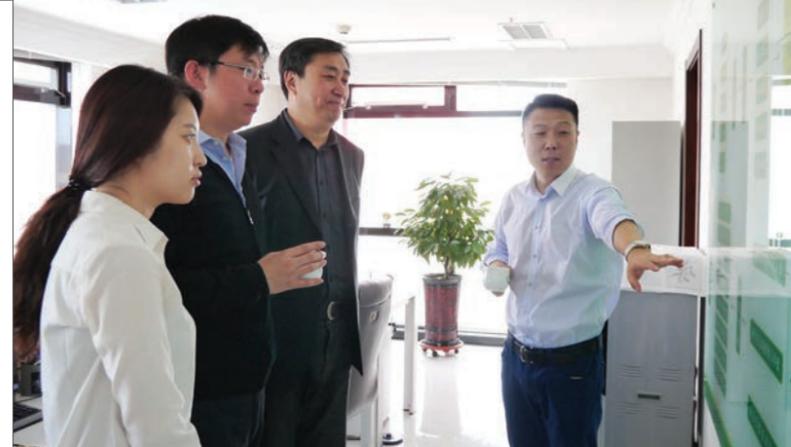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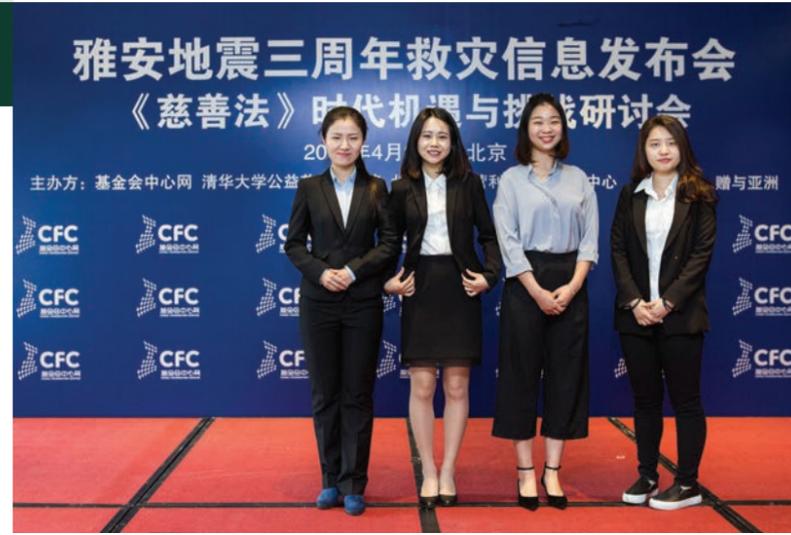
동재
안소정

CFC, 숫자로 세상을 바꾸다

숫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CFC는 그 목적에 걸맞게 각종 사회적 재단의 정보를 정리하여 재정 투명도를 측정하고 세상에 공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CFC는 내부적으로 비영리 기관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외부적으로 공익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촉진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관을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CFC라는 존재가 마냥 생소했다. 그러나 5개월간 다양한 보고서들을 만들고, 회의에 참여하고, 포럼을 보조하면서 중국 기금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CFC와 같은 자체 감찰 기구가 반드시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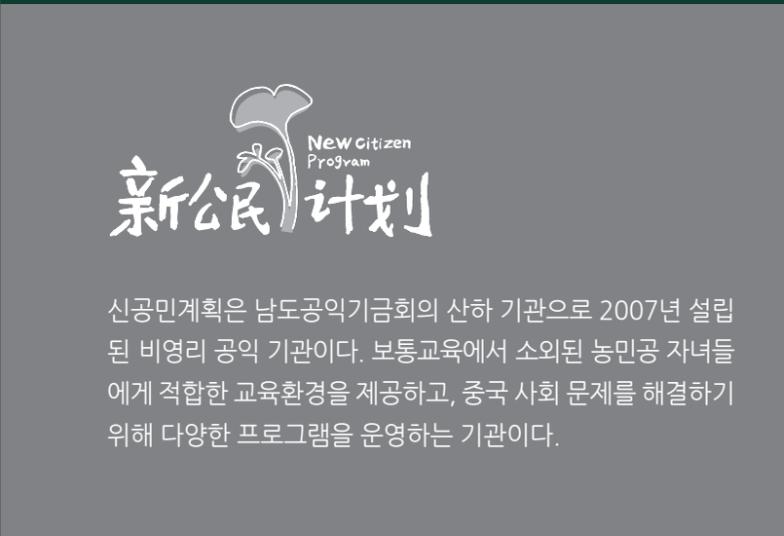
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 사실을 유념하고 스스로 반성할 때 비로소 투명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재
조은채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의 연쇄 고리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호적과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혀 있는 셈이다.

신공민계획은 농민공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한 사다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기관이다. 관련 학교 및 교사 지원, 과학 및 성교육, 방과후 활동 지원, 유동아동 교육 관련 연구 조사, 홍보, 후원 기금 모금 등 진행하고 있는 업무 역시 굉장히 다양하다. 나는 아이들을 위한 미술 활동 및 문화 수업을 직접 기획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주말에 있는 도시 탐험 프로그램 기획에도 참여했다.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 노력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신공민계획은 남도공익기금회의 산하 기관으로 2007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 기관이다. 보통교육에서 소외된 농민공 자녀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중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농민공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사다리, 교육

신공민계획은 '농민공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사명 아래 설립된 기관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왔지만, 도시의 호적을 얻지 못한 농민공들은 도시에 남아 유동인구(流动人口)가 된다. 대부분의 자녀들 역시 그들의 부모를 따라 도시의 유동아동(流动儿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아이들은 도시의 호적이 없어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학교에 입학할



동재
박진수



아라산SEE공익기구는 2004년에 창립된 아라산SEE생태협회가 발전하여 2008년에 설립한 중국 환경·생태 분야의 공익기구이다. 사회를 의미하는 'Society', 기업가를 의미하는 'Entrepreneurs', 그리고 생태를 의미하는 'Ecology'의 영어단어 앞글자를 결합한 명칭이다. 즉, 중국 기업가들의 국내 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발현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기구이다.

중국이 환경을 생각하는 방법

아라산SEE공익기구는 중국 기업가들이 중국 내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기관이다. 사막화 방지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습지 보호부터 대기오염 관리까지 모든 환경영역에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에 직원들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매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진다.

나는 생태보호부서의 일원으로 철새 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매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해외 철새 보호 사례들을 조사 및 보고하는 일을 했다. 철새 보호를 위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환경 NGO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녹색 창업가(创绿家) 심사, 사막 좁쌀(沙漠小米) 홍보, 이사회, 워크숍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이 환경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清华-卡内基
全球政策中心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는 중국 칭화대학과 미국 CEIP의 세계적인 학자와 전문가가 함께 모여 중국의 외교관계, 국제경제 및 무역, 기후 변화와 에너지 등을 포함한 오늘날의 글로벌 이슈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동재
방 병 운

경청, 깊이 있는 외교관계의 시작

외교의 핵심은 상대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일이며, 상대국과 어떠한 문화적, 역사적 차이가 있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정반대의 이념과 문화를 가진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가 올바른 외교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칭화-카네기 글로벌 정책센터. 나는 이곳에서 깊이 있는 외교관 '경청' 에서부터 시작됨을 배울 수 있었다.



경청하기 위해, 상대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칭화-카네기 글로벌정책센터는 매주 저명한 중국의 외교정책학자들을 모시고 북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정책 등 국제이슈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국제관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부상하는 중국의 경제적 저력과 외교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경청의 자세를 가진 학자들의 진정한 소통의 모습을 보며 중국과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에 대한 시야를 함께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동재
박 진 수

문화는 그 사회의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오래된 삶의 양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문화는 수천 년에 걸친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통찰이 우선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러한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문화수업은 매주 화요일 저녁 총 열 차례 진행되었다. 교수님들은 중국의 관점에서 역사, 정치, 경제에 대해 강의해주셨다. 그 전까지 한국의 관점에서만 접했던 중국 역사가 새롭게 보였고 막연히 알았던

중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업내용은 베이징이 가지는 의미였다. 베이징은 수도로서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정치적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었다. 이는 베이징을 넘으면 중원을 장악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막으면 중원을 지킬 수 있다는 역사적 배경 덕택이었다. 문화수업을 통해 얻은 다양한 배경지식으로 시안 문화기행, 베이징 그리고 중국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중국 고대·근대사 문화수업
중국을 이해하고 느끼게 되다



동재
조은채

금요일 저녁, 제8기 베이징 펠로우들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라오셰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차관인 라오셰차관에 방문했다. 매일 밤 저녁마다 이곳에서 열리는 중국의 전통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서였다. 중국의 가옥인 사합원을 본떠 지어진 라오셰차관은 그 건물부터 옛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전통의상을 입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중국 전통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직 공연이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중국 문화의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었다.

공연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한 중국의 전통예술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무(歌舞), 마술(魔術), 만담(漫談), 변검(變臉), 경극(京劇), 무술(武術), 기예(技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흔히 중국 예술의 중추라고 불리는 공연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차와 다과를 즐기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매력적이었다. 다양한 공연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즐기며, 차 문화까지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경극 <라오셰차관(老舍茶馆)> 관람
중국 전통예술의 종합 선물 세트



중국 시안(西安) 문화기행
중국 1000년의 수도, 시안을 다녀와서

동재
안소경

장안이라 불렀던 시안은 무려 13개 국가, 약 1000년이란 시간 동안 수도로서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를 담당했다. 시안은 실크로드 동쪽의 시작점인 동시에 수당시대 운하의 시작점으로, 중화 문명의 발상지이자 중화 문화의 결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도시 중에는 유일하게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도시이기도 하다.

시안은 오랜 시간 동안 문화가 축적된 만큼, 도시 곳곳에서 여러 유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진시황의 병마용갱, 당 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을 나눴던 화청지, 삼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려 만들었던 대안탑 등을 보니, 중국의 옛날이야기 속을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동안 책으로만 접해왔던 중국 역사의 기록들을



직접 보면서 과거 중국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그리고 중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세계적인 싱크탱크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 및 저명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2011년 아산 정주영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맞이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구현'이라는 아산 선생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자생력 복원과 지속적인 역량 개발 사업을 통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들의 창업 정신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아산서원 제8기 원생 기자단 Voyage 후기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아산서원 생활의 순간을 담기 위해 동분서주한지도 벌써 10개월. 이제 그 끝이 보인다. 원생들의 생기발랄함과 서원생활의 다채로움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던 우리의 순간은 내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 순간과 추억이 엮여 펼쳐질 Voyage를 기대하며, 제8기 원생들이 앞으로 할 삶의 여행을 응원해본다.

- 동재 **김진영**

아산서원에서 보낸 특별한 순간순간의 감성과 생각을 담았다. 지난 10달간 우리는 어떤 감정을 지니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서로 각자의 ‘voyage’를 떠나게 되더라도 문득 지금의 이 시간들이 궁금해졌을 때 펼쳐볼 수 있는, 그리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 동재 **박은영**

아산서원은 10개월만으로 마무리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산서원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것들은 10개월을 넘어 우리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모든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Voyage는 제8기 원생 모두에게 선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가끔 막막하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올바른 길을 찾게 해주는 추억이 가득 담긴 나침반. Voyage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 30명의 여정(旅程)에 마지막까지 들추어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 동재 **조은채**

카메라도 다룰 줄 모르던 내가 10개월간 아산서원의 사진기자로 일한 건 하나의 도전이었다. 원생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카메라 설정을 공부하고 자세와 구도를 배우다 보니, 어느새 내 손에 들려있는 카메라가 익숙해졌다. 사진을 찍어 보여주며 다른 원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건 사진기자로서의 행복한 특권이었다. 아산서원은 이제 끝나지만, 아산서원 제8기는 계속되기에 나는 앞으로도 우리들의 사진기자로 남아있을 것이다.

- 서재 **전재권**

VOYAGE

아 산 서 원 제 8 기

펴낸날 2016년 06월 17일
펴낸곳 아산서원
엮은이 아산서원 제8기 원생 기자단
편집인 아산서원 운영실
편집디자인 EGISHOLDINGS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asanacademy.org>

아 산 서 원

ASAN
ACADEMY

峨 山 書 院

<http://www.asanacademy.org>
<http://blog.naver.com/asanacademy1>
<http://www.facebook.com/asanacademy>